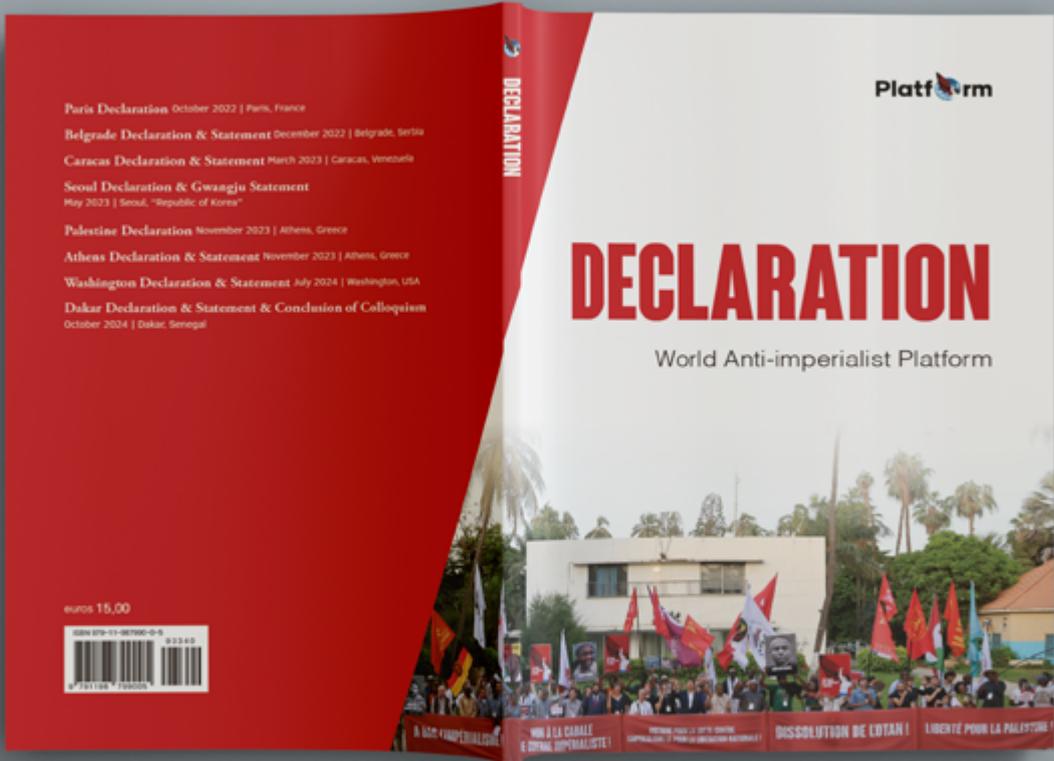


# 힘겨쟁의 기판치

2

도미노





# 2026.2 차례 **차레** 민중민주당이 만드는 진보정치시사월간지

02 사설 도미노의 끝은 혁명

특집1 \_ 정세

## 트럼프미정부로부터의 연쇄충격파, 동아전을 결정적으로 촉진하다

- 06 <조국과인민의장한아들딸들인인민군장병들의불멸의공적>
- 08 <우리시대의비약적인발전상을직관해주는귀중한부흥의재부>
- 10 <군국주의유령> 일개헌추진
- 12 서반구요새화, 쿠바·그린란드압박
- 14 또다른전쟁우려속 이란핵협상진행
- 16 각종악재 트럼프지지율최저기록
- 18 미통상압박속 환율·물가불안
- 20 아직도 멀고면 내란청산, 2차특검 진행
- 22 <베네수엘라전은필연코동아시아전도촉진할것>
- 24 <볼리바르혁명을강력히지지한다>
- 26 아카이브

특집2 \_ 당과 투쟁

## 트럼프의 도미노

- 48 <돈로주의>와 <전략적인내>
- 50 그린란드, 북극해 지배의 교두보
- 52 국가안보전략2025로 인한 도미노
- 54 이란전은 곧 대만전
- 56 러시아에게 발트3국점령은 쉬운일
- 58 알아야한다, 알고있다
- 60 다카이치, 동아전을 부른다

기획1 \_ 정책

## 미쇼비니스트, 서아전과 중미전으로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앞당기는가

- 64 고립주의에서 팽창주의로
- 66 <자유주의국제질서>글로벌리스트로의 변모
- 68 고립주의의 완전한 탈피 미국중심의 글로벌체제 확립
- 70 <유연대응전략>과 <힘의균형전략>
- 72 <냉전>의 전환점, <레이건독트린>
- 74 <신자유주의>시대, 안보전략의 새로운 인식
- 76 <유라시아포위환전략>과 제국주의봉쇄정책
- 78 불안정과 혼란을 초래한 <인도태평양전략>

기획2 \_ 정치와 문화

## <신먼로주의>가 불러온 반제반미의 연쇄적파급과 미제국주의의 필연적파멸

- 82 <시카리오:암살자의도시> 무법천지
- 84 <서반구요새화전략>으로 시작된 미제국주의의 피할수 없는 몰락

100 항쟁의 목소리 아카이브

102 씨네마떼끄 <하우스오브다이너마이트> 충격과 공포

104 이달의 사건 미국국가안보전략<평정선언>

106 날줄과 씨줄 지정학

108 플랫폼오움 전술적공동전선과 전술적공조



# 도미노의 끝은 혁명

트럼프의 도미노는 혁명을 부른다. 트럼프의 <첫충격>이 세상에 도미노현상을 일으키고있다. 2026.1.3 트럼프미정부의 <절대적결의>작전으로 생긴 충격파가 컸다.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미국이 그나마 허울이라도 유지했던 <국제경찰>에서 <국제강패>로 입장을 바꿨기때문이다. 미정부의 유엔에서 탈퇴하는 흐름도 가속화했다. 무엇보다 <서반구중시전략>으로 전환하며 동반구경시전략, 동반구에서 점진적으로 퇴각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사이, 제국주의진영내 갈등이 증폭되고 중국·러시아·조선등 반제진영이 더욱 굳게 뭉치고있다.

트럼프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한마디로 동반구를 포기하고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것이다. 전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역량이 안되는만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해 서반구만큼은 확실히 지키겠다는것이다. 서반구는 아메리카 더하기 그린란드. 중남미를 장악하는데서 <린치핀>인 베네수엘라를 힘으로 제압하고 이어 그린란드 소유를 선언한것이 우연이 아닌 이유다. 트럼프정부는 지금 쿠바를 압살하기 위해 광분하고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군사적압박의 도수가 높아지면 결국 카리브해전, 중미(아메리카)전이 터진다.

트럼프정부는 기어이 이란전을 일으킬것인가. 이란전은 곧 서아(아시아)전이다. 하메네이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이란전은 즉시 서아시아전으로 변질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란가까이 주둔하고있는 미군기지들과 이스라엘은 불바다가 된다. 이란은 미사일강국이고 중국·러시아등 반제진영은 결코 이란이 <제2의시리아>가 되는것을 좌시하지않을것이다. 이란전이 터지면 서아전이 터진다. 중미전이든 서아전이든 세계적으로 확대될수밖에 없다.

중미전·서아전은 중국의 대만전으로 이어지고 그즉시 조선의 <한국>전으로 변진다. 대만전과 <한국>전을 합치면 동아전이다. 동아전이란 중국·조선이 <전략적인내>를 풀었다는것을 의미하며 역시 곧바로 러시아·이란도 그렇게 하게 된다. 이는 동구전·서아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트럼프미정부의 군사적도발과 연쇄반응으로 인해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가 앞당겨지고있다. 제국주의진영이 분열로 약화되고 반제진영이 비상이 강화되고있다. 도미노의 끝에 혁명이 있다.





# 트럼프미정부로부터의 연쇄충격파, 동아전을 결정적으로 촉진하다

한결



트럼프미정부는 지금 2개전장에서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 하나는 중미(아메리카)고 다른하나는 서아(아시아)다. 이미 중미에서 2026.1.3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며 마두로대통령부부를 납치하고 연이어 쿠바에 대한 석유공급을 차단하는 해상·경제봉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에 멕시코마저 석유공급을 못하게 되면 쿠바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렇게 되면 쿠바에서는 <색깔혁명>이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쿠바와 미국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의 대이란공세도 도수를 높여가고있다. 2026.1~2 2개핵항모단이 이란근해에 포진해있고 각종무력이 속속 집결하고있다. 이란내에 폭발·화재가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주요군사지휘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있다. 동시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간의 협상에는 결정적인 진전이 적어도 아직은 없다. 이란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지원이 강화되고있다. 중국의 군사적지원은 전례없는 수준이다.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중 하나인 이란마저 미국의 손아귀로 넘어가는것을 중국은 결코 용납할수 없다.



트럼프정부의 2025.11 <국가안보전략(NSS)2025>와 2026.1 <국가방위전략(NDS)2026>은 선택과 집중으로 동맹국을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서반구를 완전히 장악하는것이 주요내용이다. 트럼프정부가 새해 들어 베네수엘라를 치고 쿠바의 목을 조르며 그린란드를 장악하겠다고 열을 올리는 이유다. 한편 2.5 독일의 매체·연구소에서 러시아가 손쉽게 발트3국을 점령할수 있다는 시뮬레이션결과를 발표했다.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와의 회랑을 장악하고 발트3국과 유럽본토의 연결이 끊어지면 1만5000명정도의 병력으로도 발트3국을 점령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정세는 중미전이든 서아전이든 어느 지역전쟁이라도 발발하면 그즉시 중국의 대만전, 조선의 <한국>전을 촉진해 동아시아로 확대될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다시 러시아의 동구(유럽)전, 이란등의 서아전을 추동한다. 동아시아가 터지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발트3국을 비롯한 구소련지역을 즉시 병합하고 그의 중구와 북구를 나토에서 탈퇴한 완충지역으로 만들려할것이다. 이란등<저항의축>의 서아에서의 반이스라엘·반제공세도 결정적으로 강화될것이다.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가 트럼프정부로부터의 연쇄충격과, 도미노현상에 의해 앞당겨지는 형국이다.

# 〈조국과인민의 장한아들딸들인 인민군장병들의불멸의공적〉



1.25 김정은국무위원장은 해외군사작전전투위훈기념관 조각창작사업을 지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위원장은 〈지금까지온나라곳곳에이수복, 조군실, 강호영과같은1950년대조국방위전에서배출된영웅들의동상이많이건립되었는데오늘은어디서나볼수있는이나라의평범한병사들의 초상이조선인민군특유의정치사상적강대성을체현하고명예의단상위에, 존엄의대돌위에거연히 서있다〉·〈이것은단순한계승만이아닌우리위업의승리를증견하는고귀한현실〉·〈전승세대의특출한영웅성이전군의대중적영웅주의로승화된여기에우리당의장구한정치사상강건건설사의금지높은충화가있다〉고 언급했다.

1.27 미사일총국이 대구경방사포무기체계시험사격을 진행했다. 김정은위원장은 시험에 참관해 〈오늘의시험은전략적억제의효과성을제고해나가는데서대단히중요한의미를가진다〉·〈나는최소가까운몇년안에는그어느나라도이와같은기술에도달하지못할것이며그러한능력을가질수없을것이라는것을확신〉·〈늘강조해왔지만우리가진행하는해당활동의목적은다른데있는것이아니라분명히핵전쟁억제력을더욱고도화해나가는데있다〉·〈이러한의지와능력을보여주는것자체가억제력의책임적인행사〉·〈우리포병은가장집중적이고파괴적이며대량적인공격력을갖추고전쟁억제의책임적인사명을수행하게된다〉라고 강조했다.

1.28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본부대표회에서 9차당대회에 보낼 대표자선거가 진행됐다. 1.28~2.6 조선노동당각도(직할시)대표회를 진행해 8차당대회이후 사업정형들을 총화하고 9차대회에 보낼 대표자들을 선거했다. 2.7 조선노동당중앙위8기27차정치국회의가 진행됐다. 김정은위원장은 당대회준비위원회 해당분과들의 당대회준비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9차대회를 2월하순 평양에서 개최할것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됐다.

2.8 김정은위원장은 건군절을 기념해 국방성을 축하방문한 자리에서 〈한해한해가힘겨웠던개척투쟁, 변혁투쟁의전위에서당의위업을보위하고나라의주권안전과인민의생명안전을지켜정말로큰수고를해주었다〉·〈당중앙위원회제8기기간에기적적인변화와팔목할성과들이루어낸우리국가의경이적인발전과공세적인전진의여정우에는고결한헌신과값비싼위훈으로승리의진격로를 열고새로운혁명의양양을부르며변혁의미래상을현실로떠올린조국과인민의장한아들딸들인인민군장병들의불멸의공적이역력히어려있다〉라고 연설했다.



2.8 국방성축하방문

- 2026
- 1.25 김정은위원장해외군사작전전투위훈기념관조각창작사업지도
  - 1.27 조선미사일총국대구경방사포무기체계시험사격진행
  - 1.28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본부대표회진행 1.28~2.6 조선노동당각도(직할시)대표회진행
  - 2.7 조선노동당중앙위8기27차정치국회의진행
  - 2.8 김정은위원장건군절기념국방성축하방문
  - 2.12 김여정부부장담화<한국당국은주권침해도발방지조치를강구해야할것이다>
  - 2.13 김정은위원장해외군사작전전투위훈기념관건설사업현지지도
  - 2.18 김정은위원장600mm대구경방사포증정식참석·연설 김여정부부장담화
  - 2.19 조선노동당9차대회개막

# 〈우리시대의비약적인발전상을 직관해주는귀중한부흥의재부〉

1.19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룡성기계연합기업소1단계개건현대화대상준공식에 참석했다. 연설에서 〈룡성기계연합기업소1단계개건현대화과정은순수무책임하고거칠고무능한지도일군들때문에 겪지않아도될인위적인혼란을겪으면서어려움과경제적손실도적지않게초래했다〉며 해당간부들의 패배주의와 무책임성, 비적극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개건현대화는새시대기계공업의본보기,표준을마련하고우리국가의산업전반의발전에도모하여사회주의건설을강력히추진시키기위한선결적인공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자리에서다시금명백히강조하건대우리가지향하는사회주의의전면적발전에서첫째로중요한것이사람을준비시키는것이며그첫째중의첫째는우리의지도일군대열을견실하고수준있는혁명인재들로꾸리는것〉이라고 강조했다.

1.20 김정은위원장은 온포근로자휴양소준공식에 참석했다. 김정은위원장은 〈역사가오랜온포 온천지대에부단한발전을지향하는우리시대에걸맞는또다른문화휴양지,문명의터전이며련〉됐으면서 〈몇해전어곳에왔을때당의영도업적이깃든사적건물이라는간판은걸어놓고도휴양소의모든구획과요소들이비문화적이고온영또한비위생적으로하고있는실태를심각히비판하던때가기억난다〉·〈오늘이렇게인민의훌륭한휴양봉사기지로다시개건된휴양소를보니참으로보람있는일을또하나했다는공지가생긴다〉고 발언했다.

조선은 1.29 은률군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착공식으로 새년도 지방발전정책진행을 시작했다. 김정은위원장이 참석해 착공의 첫삽을 떴다. 김정은위원장은 연설에서 〈오늘부터우리는지방변혁을향해가는또한해의거창한투쟁의출발선에나섰다〉·〈지방발전정책실행3년째인올해에은률군을비롯한나라의20개지역에는지방공업공장들과함께보건시설,종합봉사소들이다같이일떠서게될것〉·〈전국의시,군들의근3분의1이개벽되게될것〉이라며 〈이같은사실은전국적범위에서인민생활을근본적으로,연속적으로개변향상시키려는확고한의지의실증으로되는동시에확대심화되는지방발전정책실행의줄기찬기세와연년이장성하는우리국가의발전잠재력을확실하게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앞장에 인민군대를 세운 목적을 강조하며 〈우리군대는전국이래처음으로되는역사적위업수행의전위대이고인민의행복의창조자들〉이라고 평가했다.

2.1 신의주온실종합농장준공식과 기념비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김정은위원장은 〈대대로물난리를속명처럼여기던어곳에주민들이천년홍수에도끄떡없을듯한방벽의보호속에흥겨운노동으로가꾸어갈새삶의터전이펼쳐진것이정말기쁘고감격스럽다〉·〈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은당중앙위원회제8기기간에진행한가장방대한사업들중의하나이며높은목표와이상을안고전국의획기적인변혁을위하여분투하고있는우리시대의비약적인발전상을직관해주는귀중한부흥의재부〉라고 연설했다. 2.2 김정은위원장은 삼광축산농장조업식에 참석했다. 김정은위원장은 연설에서 〈삼광리는현대화된축산기지이며서도나라의4000분의1에해당한지역단위로서의모든기능과징표를높은수준에서갖춘교본적이고이상적인농촌〉·〈이자리에서분명히하는것은삼광리를지난시기와같이몇몇전향단위처럼내세우고소개하는것으로끝나자는것이아니라이를발상으로,출발점으로해서온나라농촌을근본적으로개변시키자는것〉이라고 강조했다.





1.19 룡성기계연합기업소1단계개건현대화대상준공식참석

- 2026
- 1.19 김정은위원장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 참석·연설
  - 1.20 김정은위원장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 참석
  - 1.29 김정은위원장은 룡군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착공식 참석·연설
  - 1.31 평원군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착공식
  - 2.1 김정은위원장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준공식 참석
  - 2.2 김정은위원장 삼광축산농장 조업식 참석·연설
  - 2.3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지구·강남군·맹산군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착공식
  - 2.5 낙원군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착공식
  - 2.6 무산군·송화군·대안구역·판문구역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착공식
  - 2.7 신평군·선천군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착공식
  - 2.8 봉산군·시중군·신흥군·통천군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착공식
  - 2.9 화평군·평강군·이원군·명간군·삼수군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착공식
  - 2.15 김정은위원장 새별거리 준공식 참석·연설
  - 2.16 김정은위원장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참석
  - 2.18 김정은위원장 화성지구 5단계 건설착공식 참석·연설

# 〈군국주의유령〉 일개헌추진

자민당선거압승에 힘입어 일이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각종정책을 추진하고있다. 2.8 일본중의원(하원)선거에서 다카이치총리의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헌발의선(총원2/3이상·310석)을 웃도는 의석을 차지했다. 단일정당의 중의원2/3이상차지는 태평양전쟁종전후 처음이다. 이로써 자민당은 전쟁가능국가전환을 위한 개헌을 재추진하려고 한다. 아베전총리가 안팎의 반발로 실패한 사안이다. 일정부는 정보수집·분석·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국가정보전략의 연내공식문서화를 결정하고 착수했다. 국가정보국창설법안도 제출했다. 하반기에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도 신설하려한다.

아사히신문·도쿄대공동설문조사결과 총선당선자93%가 개헌에 찬성했다. 2003 조사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개헌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자위대헌법명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민당 주요인사들은 개헌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외 개헌필요내용으로는 긴급사태에서의원임기연장(64%)·교육시설확충을위한환경정비명기(39%)·긴급사태에서법률을대신하는정령제정을가능케하는긴급사태조항(34%)·집단지위권보유(22%)등이 뒤따랐다. 고이즈미방위상은 2.10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한다, 절차를 밟을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움직여야한다고 부추겼다.

이와중에 2.12 일은 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명분으로 증선박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 후쿠오카중총영사관이 선장측의 담보금지급을 보증하면서 1일만에 석방하면서 군사적긴장이 고조되진않았다. 2.13 뮌헨안보회의행사에서 고이즈미는 중의 해양진출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현상변경시도가 용인돼서는 안된다면서 동북아시아의 엄중한 안보환경을 거론하고 방위력강화입장을 표명하며 유럽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고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는 이날 차세대전투기를 공동개발하고있는 영국·이탈리아국방장관과도 각각 회담했다.

다음날 왕이중외교부장은 뮌헨회의 중특별세션에서 미를 겨냥해 대만독립을 중용·획책하고 중을 분열시키며 중의 <레드라인>을 밟는다면 중미의 대결로 이어질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다카이치가 취임직후에 한 <대만유사시집단지위권발동>시사언급을 다시금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지도자가 대만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하는것은 일이 대만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려는 야심이 사라지지않았고 군국주의의 유령이 여전히 떠돌고있음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세계를 둘러보면 아시아만이 여전히 총체적평화를 유지하고있고 중은 아시아평화의 중추적역할을 하고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CIA(중앙정보국)는 중국군내부에서 정보원을 모집하기 위한 새홍보영상을 유튜브등 온라인에 공개했다.





2.8 일자민당 중의원의석확보현황

2026 ◦ 2.8 일자민당중의원선거압승

- 2.10 고이즈미개헌안국민투표기회제공촉구
- 2.12 일중선박나포·선장체포 아사히신문총선당선자93%개헌찬성보도 CIA중국군내부정보원모집홍보영상공개
- 2.13 뮌헨안보회의 고이즈미<(중의해양진출)힘에의한일방적현상변경시도용인돼서는안돼> 일영군사회담 일이탈리아군사회담
- 2.14 왕이<일본의야욕이사라지지않았으며군국주의망령이여전히배회>
- 2.18 일국가정보국창설법안제출

# 서반구요새화, 쿠바·그린란드압박

트럼프행정부는 2025.12부터 베네수엘라원유수송유조선을 불법나포하면서 베네수엘라원유의 쿠바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쿠바와 석유거래를 하는 다른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있다. 쿠바정부는 연료부족에 따른 비상조치를 실시했다. 2.6 국영기업의 주4일근무제 도입·연료판매제한등 에너지위기대응긴급조치를 발표했다. 버스·철도운행축소와 일부관광시설폐쇄에 이어 학교수업시간단축·대학대면수업축소요건완화도 시행했다. 석유부족사태가 심화되면서 쿠바를 오가는 항공기연료공급도 중단됐다. 로드리게스쿠바외무장관은 미의 석유봉쇄조치를 두고 잔인한 침략이며 쿠바인민의 정치적인지를 꺾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개했다. 러시아와 멕시코는 해오던대로 쿠바에 석유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2.2~3 베네수엘라민중들은 미국의 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플로레스영부인에 대한 납치·불법체포 1달을 기해 카라카스를 비롯한 전국에서 집회를 열었다. 시위는 자국의 주권과 독립을 지지하고 미제국주의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라틴아메리카매체 텔레수르는 엄숙한 철야시위를 통해 베네수엘라민중들은 주권존중을 계속 요구하고 볼리바르혁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카베요PSUV(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두로부부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귀국을 요구하는 일련의 동원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뮌헨안보회의가 열린 2.13 루비오미국무장관·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닐센그린란드총리가 뮌헨에서 만나 그린란드문제에 대해 15분간 회담했다. 닐센은 진행중인 대화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과 그린란드의 이익이 명확히 강조됐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미대통령은 덴마크령그린란드를 어떻게든 차지하겠다고 무력사용가능성을 시사해 미·유럽의 대서양동맹을 파탄직전으로 몰아갔다. 트럼프는 <골든돔>(미차세대방공망)과 광물권이 그린란드관련합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고 덴마크·그린란드는 안보·투자문제를 논의할수 있지만 영토주권만큼은 협상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린란드와 덴마크에서는 수천명규모의 그린란드인수반대시위들이 진행됐다.

미언론들에 따르면 미군은 마두로부부체포과정에서 AI(인공지능)를 이용해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클라우드(생성형AI서비스)가 마두로체포작전에 활용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 국방부와 엔트로픽(AI개발기업)이 2억달러규모의 소프트웨어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AI의 전쟁사용여부를 놓고 윤리적인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방부는 군사행위에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전쟁에 수행하는것을 허용하지않는 AI모델은 채택하지않을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오픈AI·구글·xAI등과 관련논의를 진행중인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국방장관은 중국에 앞서기 위해 AI를 군네트워크에 통합하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2.3 베네수엘라 마두로석방촉구전국집회

- 2025 • 2025.12 베네수엘라쿠바원유공급중단
- 2026 • 2026.1.3 미군마두로부부납치
- 1.5 마두로부부맨해튼연방법원출두 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취임
- 1.6 트럼프미베네수엘라석유활용방침천명
- 1.17 트럼프덴마크·유럽일부25%관세부과압박
- 1.21 트럼프다보스포럼연설 그린란드인수·합병대상언급
- 2.2~3 베네수엘라지역마두로부부석방촉구·미내정간섭 반대집회
- 2.6 쿠바에너지위기대응긴급조치발표
- 2.12 러쿠바원유·연료긴급공급보도
- 2.13 뮌헨안보회의 미덴마크그린란드회담

# 또다른전쟁우려속 이란핵협상진행

정부의 강경진압속에 이란내 시위·반정부테러가 잦아드는 가운데 폐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 테헤란 이슬람혁명기념행사에서 이사태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을 섬겨야한다며 경찰, 혁명수비대, 바시즈민병대의 순교자들, 그리고 고의든 아니든 속아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모든이들이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하지않으며 검증에 응할 준비가 됐다면서 지역국가들과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하고있다, 미와 유럽의 과격한 요구에 굴복하지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란당국은 2024.12.28 시작된 경제난항의시위가 서방의 개입속에 반정부테러로 비화된데 따라 인터넷·통신을 전면차단하고 강경진압에 나섰다. 1.21기준 총3117명이 숨졌다.

2.6개월만에 미는 이란과 핵협상을 재개했다. 트럼프는 2차협상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하고 대이란군사작전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미와 접촉해 핵협상진행을 방해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미가 이번 협상에서 이란에 우라늄농축중단·탄도미사일사거리300km제한·서아시아(중동)대리세력지원중단까지 합의를 끌어내야한다고 열을 올리고있다.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핵프로그램과 제재완화만 다뤄져야하며 우라늄농축권리를 포기하지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스라엘은 필요시 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단독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미행정부에 통보했다. 협상중재역할을 해온 튀르키예는 미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고 고집한다면 핵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지못할수 있다면서 그결과는 역내의 또다른전쟁이 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2.9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아랍에미리트·카타르·인도네시아·파키스탄·이집트·튀르키예외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점령된 팔레스타인영토에 대해 어떠한 주권도 없다며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승인한데 대해 국제법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군이 2.12 시리아내주요주둔지였던 알탄프기지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시리아 정부군에 이를 인계했다. 미는 팔레스타인전발발이후 친이란무장단체가 역내 미군을 공격하자 시리아주둔미군을 한때 2000명이상으로 늘렸다가 최근에는 약900명까지 줄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상황에서 미는 앞으로 정부군과의 협력이 쉽지않을것으로 보고 시리아에서 완전철수를 고려하고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팔레스타인·시리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있다.

한편 러시아는 키예프·하리코프·오데사등 우크라이나주요도시를 대대적으로 공습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가 탄도미사일24발·드론219대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즈음 빠르면 몇주내에 남동부 홀리아이폴레, 동부 포크롭스크와 미르노흐라드의 전략거점3곳을 점령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러·미·우크라이나의 3차중전협상이 예고된 가운데 트럼프는 젤렌스키대통령이 움직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조속한 종전협상의지를 이어갔다. 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 유럽의 안보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푸틴대통령과의 직접대화를 계속 요구하고있다. 발트3국내에서도 유럽이 발언권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영국·독일·폴란드는 회의적이다.



2.6 이란과의 핵협상을 위해 오만에 방문한 쿠슈너·윅코프

- 2025
  - 2025.12.28 이란경제난시위
  
- 2026
  - 2026.1.4 이란반정부시위전국확산
  - 1.8~9 이란시위테러비화 이란당국전국인터넷·통신망차단
  - 1.13 트럼프이란시위대정부기관장악공개격려
  - 1.21 아락치미공격시전면대응경고
  - 2.2 미이스라엘대이란공조회담
  - 2.6 미이란핵협상재개
  - 2.9 서아시아주요국이스라엘요르단강서안지구통제력강화조치 승인규탄공동성명
  - 2.11 트럼프·네타냐후백악관회담
  - 2.12 시리아알탄프기지미군철수
  - 2.12~13 러우크라이나주요도시대규모공습
  - 2.17 러미우크라이나제네바중전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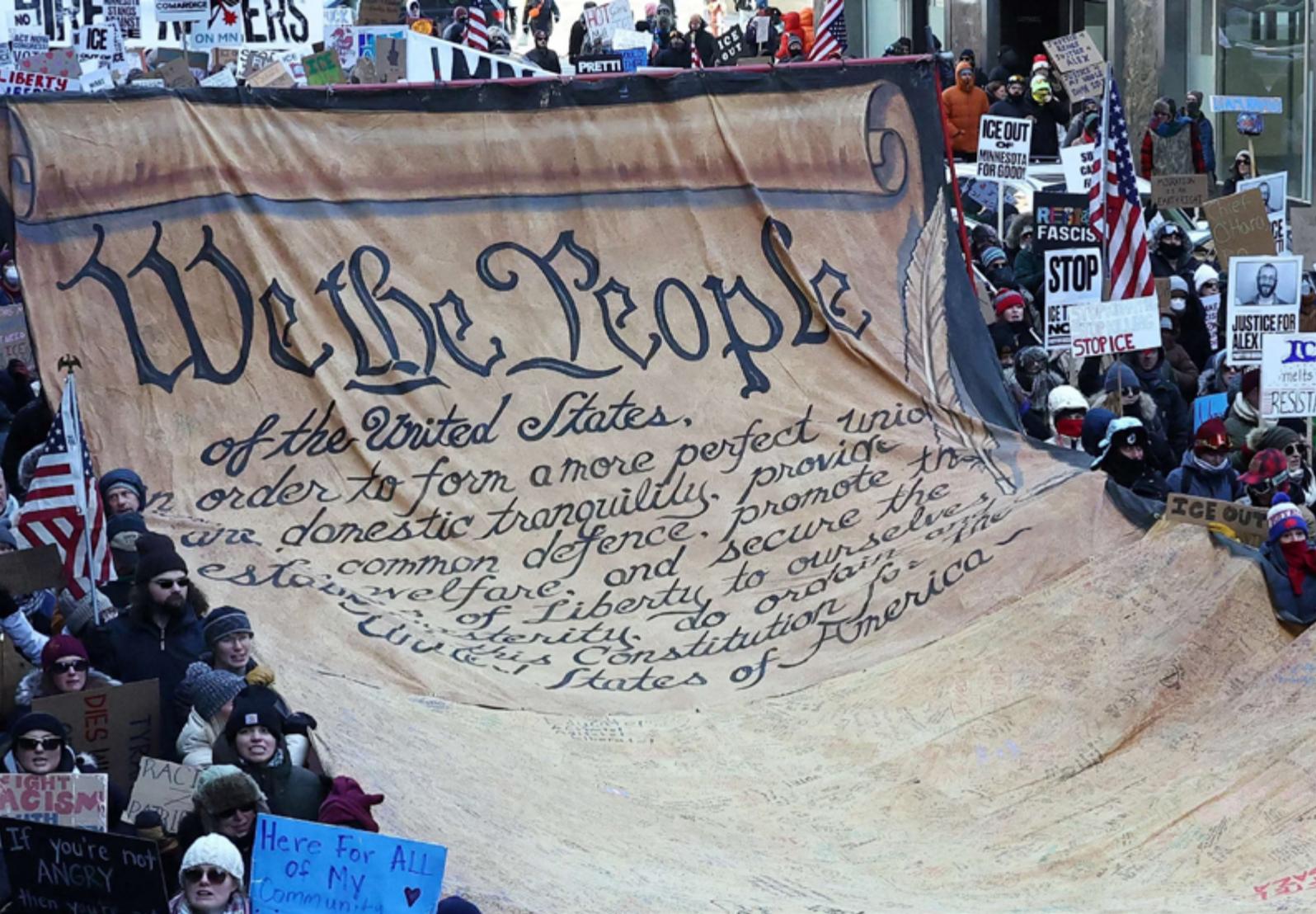
# 각종악재 트럼프지지율최저기록

전통적으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인 미와 유럽이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의 주최측은 2.9 2차세계대전 이후 미가 주도한 국제질서가 파괴되고있다는 연례보고서를 내놨다. 2.13 본회의에서 유럽정상들은 지난해보다 더 강하게 미의 우선주의를 비판하고 유럽자강론을 강조했다. 메르츠독일총리는 낡은 질서가 무너진 세계에서 미조차도 홀로 나설만큼 강력하지않다고 지적했다. 폰테라이엔EU(유럽연합)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안보에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유럽의 상호방위조약을 되살릴때가 왔다고 언급했다.

스타머영국총리는 수십년간 영은 나토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억지력을 투입했다며 어떤 적대국도 위키시 우리의 통합된 힘에 맞서야할수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마크홍프랑스대통령은 공격적인 러에 맞서 핵억지력을 재정비함으로써 유럽이 스스로의 안보를 확보할수 있는 지정학적강대국으로 거듭나야할때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미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이 쇠퇴하고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이에 미는 수습에 나섰다. 루비오미국무장관은 2.14 회의연설에서 분리를 추구하는것이 아니라, 오래된 우정을 활성화하고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을 새롭게 하려한다, 미는 언제나 유럽의 자식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방어할수 있는 동맹국을 원한다며 고장난 현상태를 고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시하길 바란다며 미의 대외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상기시켰다.

1.27 로이터통신여론조사에서 이민정책논란속에 트럼프대통령지지율은 38%로 하락하면서 2기취임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여론조사응답자의 약58%는 미ICE(이민자단속국)요원들의 불법이민단속과정이 도를 넘었다고 답했다. 여야의 강경이민정책관련갈등속에 이민단속·국경안보주무부처 국토안보부(DHS)의 예산안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2.14 국토안보부가 일부기능을 중단하는 섀다운에 들어갔다. 트럼프행정부는 2025.12부터 미네소타주일대에 3000명규모연방요원을 투입해 불법이민자단속을 강화했다가 시민2명이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에 숨지면서 미전역에서 반이민정책시위가 고조되자 단속작전을 종료했다. 작전을 통해 <범죄자신분불법체류자> 4000명이상이 체포됐다. AP통신은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들과 어린이, 미국시민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1.30 미법무부가 억만장자이자 미성년자성착취범 엡스틴과 관련한 수사자료 약300만쪽문서·사진자료18만장·영상2000개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해 해당문서공개를 의무화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최대규모다. 이번 공개는 엡스틴관련문서를 전면공개하라는 트럼프서명이 담긴 법률이 정한 기한을 6주 넘긴 시점에서 이뤄졌다. 문건에는 엡스틴이 미성년자성매매·인신매매혐의로 체포돼 2019 수감중 사망하기까지 수십년간 부유층·권력층과의 광범위한 교류를 유지해온 정황이 담겼다. 특히 세계각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국가기밀등의 정보와 출처나 이유가 명확하지않은 거액을 주고받은듯한 정황이 다수 밝혀지면서 줄줄이 사퇴하거나 경찰수사대상에 올랐다. 트럼프판세정책을 주도해온 러트닉미상무장관은 엡스틴과의 관계가 알려진 것보다 더 깊었던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임요구에 직면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트럼프와 관련된 사실들이 포함됐고 트럼프가 엡스틴의 불법행위를 알고있으면서도 사건화되기전까지 조치를 취하지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엡스틴파일공개로 트럼프가 결정적근거에 처할수 있게 됐다.



1.30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반이민정책시위

2006 ◊ 2006.7 엡스틴미성년자매춘알선혐의기소

2024 ◊ 2024.1.3 엡스틴문서단계적공개시작

◊ 2025.12 트럼프미네소타주일대3000명규모연방요원투입 AP·NORC트럼프경계운용지지율31%

2026 ◊ 2026.1.7 연방요원총격미네소타주시민1명사망 <굿사망>사건 1.24 연방요원총격미네소타주시민1명사망 <프레티사망>사건

1.27 트럼프지지율2기취임이후최저치기록보도 1.30 미법무부엡스틴수사자료추가공개

2 AP·NORC트럼프지지율40%·등록유권자증36%

2.9 뮌헨안보회의주최측연례보고서<2차세계대전이후미가주도해온전후국제질서가파괴되고있다>

2.12 백악관불법미단속작전종료예정발표 2.13 뮌헨안보회의 2.14 루비오뮌헨회의연설 미국토안보부일부셋다운돌입

# 미통상압박속 환율·물가불안

국회가 2.9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9이전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1.26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입법부가 미<한>간의 합의를 지키지않고있 다면서 자동차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여야는 양측의 입장차이를 뒤로하고 2.4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미투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재인상통보가 특별법처리만으로 보류될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는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농산물시장개방확대·구글정밀지도 허용·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추진중단등 <한국>측에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있다. 1.16 러트닉미 상무장관은 <한국>기업이 강점을 가진 메모리반도체를 미에서 생산하지않으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냈다.

양국의 관세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미의 통상압박본격화는 <한국>경제의 대외의존구조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있다. 미의 보호무역기조와 자국산업우선정책은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등 핵심산업이 협상카드로 이용될경우 기업투자심리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결과에 따라 관세인상이나 비관세장벽이 현실화될경우 이미 둔화된 성장흐름은 추가타격을 받을수 있다. 환율변동성 역시 이같은 통상리스크와 맞물려 확대되고있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구조속에서 정책대응여력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지연시키고 경기회복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한국>경제전반에 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있다.

높은 원·달러환율은 수입물가상승을 통해 국내물가를 자극하고있다. 에너지·원자재가격부담이 누적되면서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물가로 전가되고있다. 고환율은 수출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할수 있지만 내수중심업종·가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식료품·공공요금·주거관련비용이 동반상승하면서 체감물가는 공식통계보다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있다. 실질임금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물가부담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있다. 소비심리지표 역시 회복세가 제한적이며 자영업·소상공인부문에서는 매출부진이 길어지고있다. 환율불안은 외국인자금흐름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변동성을 키우고있다.

금리부담과 대출규제강화속에서 부동산시장은 지역별로 양극화와 조정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있다. 거래량감소와 가격조정이 이어지면서 자산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약화되고있다. 가계부채규모가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가격하락은 소비여력을 더욱 제약할수 있다. 여기에 세계 금융시장에서 엔캐리트레이드자금이 환율변동성확대와 함께 회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있다. 일본금리정상화움직임이 본격화될경우 저금리엔화를 활용해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이 되돌아갈수 있다는 우려가 돌고있다. 이경우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산가격은 단기충격을 받을수 있다. 외국인자금유출과 환율상승이 맞물리면 금융불안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9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건의결

- 2025 • 2025.11.13~14 미<한>합동설명자료발표
- 2026 • 2026.1.14~16 러트닉3일연속반도체관세관련경고언급
- 1.26 트럼프<한>자동차관세·상호관세15%→25%재인상언급
- 2.4 여야대미투자특별법조속처리합의 미무역대표부·<한>외교부회동
- 2.9 국회대미투자특별법심사특별위구성
- 3.9 국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 예정

# 아직도 멀고먼 내란청산, 2차특검 진행

3대특검잔여의혹을 규명할 2차종합특검팀이 구성됐다. 최대 251명수사인력에 최장170일수사가 가능한 2차특검의 수사대상사건은 총17가지다. 내란관련해서는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 계엄준비관련수첩메모,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위협, 전단살포등을 이용한 외환의혹, 지방자치단체등의 12.3계엄동조여부등이다.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집무실·관저이전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중점변경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사건들은 2025.11~12 3대특검종료뒤 경찰특별수사본부와 군검찰이 사건을 각각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2.19 윤석열에 대한 1심선고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전두환이 1996 1심선고에서 받은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이는 내란우두머리혐의에 사형·무기징역중 최저형이다. 정청래민주당대표는 <국민의법감정만 하는매우미흡한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촛불행동·전국민중행동·군인권센터등은 무기형에 대해 <국민우롱>·<국민눈높이에적절한판결은법정최고형인사형>이라며 조희대사법부와 재판부에 반발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노상원수첩이나 주요증언등을 배척하고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내란책동을 가볍게 평가한 부분에 대해 반론이 거세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명태균공천개입의혹의 핵심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공천을 청탁한것으로 보이지만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 실제로 공천을 받은것은 이청탁으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건희는 2022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으로부터 약 2억7440만원상당의 여론조사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명태균이 자신의 사업홍보를 위해 여러정치인에게 여론조사결과를 보내는 영업을 했다고 보면서 김건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명태균이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다소 망상적인 모습을 보여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태균의 활동이 김영선공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2 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비공개의원총회뒤 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 입장을 전하면서 장동혁은 계엄홍호나 내란동조, 부정선거, 윤어게인세력에 동조한적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극우유튜버 전한길은 2.8 장동혁에게 <계엄홍호내란세력, 부정선거주장세력, 윤어게인세력과갈수없다는 것이당대표의공식입장인지3일안에답하라>고 요구했고, 2.10 장동혁은 문화일보유튜브채널에 출연해 해당 노선에 대해 변화가 없을것임을 밝히면서 수습했다. 한언론은 <지금국힘당당원의다수는사이비종교의신도이거나, 극우유튜버인전씨와오성국씨의가짜뉴스를믿으며윤어게인을외치고, 부정선거음모론에빠진사람들이다>·<그리고국힘당이지금윤어게인과절연을한다고아무리외쳐도국민대다수는믿지않을것이고지방선거에서 표를주지않을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2.3 칼럼<국민의힘망해야산다>에서 <같은편이라고무조건 찍으면안된다. 그래야보수도살>것이라고 지적했다.

6.3지방선거전 민주당·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불발됐다. 조국혁신당은 2.11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통합을위한통합추진준비위원회구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6.3지방선거전 합당은 민주당내 반발로 무산됐지만, 양당은 선거연대나 지방선거이후 통합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2.9 촛불행동회원이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보궐선거에 김민웅촛불행동상임대표의 출마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보궐선거에임하는우리의자세는<내란청산, 국힘당해산, 한표도내어줄수없다, 한자리도내어줄수없다>는각오를담아야한다>·<민주당에무엇을믿고말길만하다고생각이안된다. 범야당으로넓혀생각해보아도그저답답하기만하다.>고 토로했다. 2.14 촛불행동은 민주개혁진영을 향해 내란청산에 총력을 다할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2024 • 2024.10 민주당공천의혹관련윤석열·명태균통화녹취록공개

2026 • 2026.1.20 2차종합특검법국무회의통과

• 1.22 국토부서기관뇌물수수사건공소기각판결

• 1.28 김건희·명태균등공천개입혐의무죄선고 윤영호<건진법사청탁의혹>징역1년2개월선고 증거인멸혐의공소기각결정

• 2.5 이재명2차종합특검권장영변호사임명

• 2.9 김예성<집사게이트>혐의무죄선고

• 2.11 조국혁신당민주당통합추진준비위구성제한수용

• 2.14 촛불행동내란청산촉구호소문발표

• 2.19 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

# 〈베네수엘라전은필연코 동아시아전도촉진할것〉

1.14~16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석방마두로!타도제국주의!〉18~23차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민중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은 반제투사·민중지도자 마두로의 석방을 촉구한다, 미국은 마두로대통령의 공소장에서 〈태양의카르텔〉항목을 삭제하면서 마두로납치·체포의 명분마저 상실했다, 트럼프는 전쟁이 아니라 〈법집행〉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주요혐의로 내세운 〈마약왕〉은 존재하지않는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한국〉민중과 베네수엘라민중과 평화를 갈망하는 진보적세계민중들의 반제반미투쟁으로 마두로대통령의 석방을 앞당겨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중민주당학생당원은 마두로석방과 제국주의타도는 현시기 반제평화세력의 최우선과제다, 지나온 역사가 보여주듯이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않는다, 반제반미의 기치아래 단결한 민중의 타오르는 투쟁은 반드시 마두로를 석방하고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세계의 진정한 자주와 평화를 앞당겨 실현해낼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상임연구위원은 마두로대통령을 납치해서 이제는 인질로 삼아서 몸값을 요구하는 범죄단체테러전 대신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강탈하고있다, 미국의 시민들과 심지어 공화당의원들까지도 그런 트럼프를 사실상 정치적생명이 끝났다고 보고있다, 우리는 트럼프의 전쟁정책과 강탈적인 관세협상,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지도자인 마두로가 석방될때까지, 트럼프가 레임덕에 빠져서 쫓겨날때까지 지지말고 끝까지 투쟁할것을 각오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베네수엘라민중에게도 〈한국〉민중에게도 투쟁의 대상은 변함없이 제국주의다, 반미반제민중정권의 전복, 석유자원등의 강탈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자행해왔던 대표적인 악행이다, 〈빛의항쟁〉이 반파쇼항쟁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한걸음 더 전진해 반제반미항쟁으로 나아가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1.17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계바라(Defense Brigade)는 미대사관앞에서 〈반제투사민중지도자마두로석방!침략자미제국주의타도!〉반제반파쇼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21세기체계바라단원은 반제투사 마두로와 제국주의전쟁광 트럼프, 반제민중국가의 지도자 마두로와 제국주의수괴국의 우두머리 트럼프는 이 극명한 대립으로 세계민중을 빠르게 각성시키고있다, 미제국주의는 라틴아메리카를 미국의 〈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카리브해의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서반구지배를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북극해의 교두보로 삼으려하고있다,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전을 휴전시키겠다고면서 〈피스메이커〉를 운운했지만 미국이 개입하는곳곳에서 분열과 대립, 전쟁은 끊이지않는다, 우리는 경고해왔고 오늘도 경고하고있다, 3차세계대전은 현재진행중이며 그본격화를 앞두고있다, 베네수엘라전은 필연코 동아시아전도 촉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1.24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계바라가 미대사관앞에서 진행한 〈반제투사민중지도자마두로석방!침략자미제국주의타도!〉반제반파쇼정당연설회에서 이적반미투쟁본부공동상임대표는 미제는 베네수엘라를 지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마두로를 강제로 끌고가는, 세상에 없는 폭거를 저질렀다, 강패지 어떻게 민주공화국이라 할수 있겠나, 제국주의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한다, 그들이 노리는것은 전쟁으로 인류를 말살하고 척살하는일이다라고 단언했다. 한명희민중민주당대표는 미국은 쿠바의 정권교체를 위해 원유를 수입하지못하게 쿠바해상을 봉쇄하는 안을 검토하고있으며 〈한국〉에서는 대미투자라는 이름으로 3500억달러를 약탈하고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를 동아시아전체로 확대하며 〈한국〉을 미제침략세력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흥심을 숨기지않고있다, 제국주의미국앞에서 〈한국〉은 베네수엘라고 베네수엘라는 〈한국〉이다, 우리가 〈노빠사란!〉, 제국주의는 베네수엘라를 통과할수 없다고 외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1.17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세계바라 <반제투사민중지도자마두로석방! 침략자미제국주의타도!>미대사관앞반제반파소정당연설회

2026 1.14~16 민중민주당미대사관앞<석방마두로!타도제국주의!>18~23차정당연설회

- 1.17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세계바라<반제투사민중지도자마두로석방! 침략자미제국주의타도!>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 공동성명 <마두로석방하라! 제국주의타도하자!> 김명희통일인력거대표추모
- 1.20 민중민주당석권호석방대책위투쟁연대
- 1.24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세계바라<반제투사민중지도자마두로석방! 침략자미제국주의타도!>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 공동성명 <해적질과침략만행에광분하는미제국주의타도하자!> 미군철수투쟁본부미대사관앞1164차자주통일시국기도회민중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연설회

# 〈볼리바르혁명을 강력히 지지한다〉

민중민주당(민중당)은 1.28 논평〈관세인상망발하는날강도미국과의협상을파기하라!〉와 1.29 논평〈〈한국〉을〈현금인출기〉로삼는미제국주의타도하자!〉를 발표했다. 1.31 민중민주당은 〈마두로석방!제국주의타도!미군철거!〉정당연설회를 2차례 진행했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서반구를 요새화해 중국·러시아의 경제·군사적영향력을 차단하고 미사일방어막〈골든돔〉을 씌워 미국본토를 보호하겠다고는 전략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점차 손을 떼고 아메리카에서의 패권만 갖겠다는 패배적선언과 다름없다, 트럼프는 재차 25%관세인상위협에 더해 〈현금인출기〉 망언까지 내뿜었다, 미국은 〈한국〉에 날강도이자 점령군일뿐 〈한미동맹〉은 이제 어디에도 내밀수 없는 찢어버려야할 명함이다, 당장 날강도미국과의 협상을 파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대통령이 미제국주의로부터 납치된지 1달째인 2.3 민중민주당은 미대사관 앞에서 〈반제투사민중지도자마두로석방!타도제국주의!〉정당연설회를 2차례 진행했다. 한명희 민중민주당대표는 미국은 당장 마두로대통령부부를 석방해야한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당·단체들, 베네수엘라·쿠바·온두라스·영국·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주요도시에서 침공규탄시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특히 미국내 전역의 도시들에서도 80건이상의 시위가 전개되며 미국의 베네수엘라침공과 주권국가에 대한 테러행위에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강조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베네수엘라가 미제국주의의 〈마당〉이 되길 거부하며 반제자주, 민중민주의 길을 굳건히 가고있는 현재,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다를바 없으며 반제반미전선에서 똑같은 하나의 운명에 처해있다, 제국주의폭압에 고통받는곳, 제국주의침략이 극심한곳, 그곳이 반제반미전선에서 최전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계바라(Defense Brigade)는 미대사관앞에서 〈마두로석방!볼리바르혁명지지!제국주의타도!〉정당연설회를 2차례 진행했다.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상임연구위원은 미네소타에서 연방경찰과 이민단속국에 의해 2명이 사살당하자 미네소타만이 아니라 전미국에서 트럼프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이번 하반기에 〈한국〉이 미국에 200억달러를 갖다 바친다면 우리(국민)들의 트럼프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국민이 바로 여기 광화문에서 2008 미국산광우병쇠고기수입을 저지시켰듯이 들고일어나 트럼프의 관세협상을 무산시키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준비하는 트럼프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킬때까지 우리는 지지시달고 끝까지 투쟁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중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은 쿠바에 대한 살인적인 제재와 고립압살을 감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에 대한 라틴아메리카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있다, 미제국주의는 최근 이란인근해에 〈링컨〉함모전단을 전개해 서아시아정세를 한층 격화시키고있다,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한국〉민중들도 베네수엘라민중들처럼 전역에서 한사람처럼 일어나 미제국주의와 그세력들에게 거세찬 타격을 가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21세기체계바라단원은 제국주의미국의 침공과 대통령납치, 자원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속에서도 베네수엘라민중은 거리에서 마두로석방투쟁을 이어가고 대통령권한대행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가고있다, 우리는 반제전선의 첨단에서 자국의 혁명적과제를 충실히 완성해나가는 베네수엘라와의 연대를 멈추지않을것이다, 볼리바르혁명을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게바라 <마두로석방!볼리바르혁명지지!제국주의타도!>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

- 2026
- 1.28 민중민주당논평<관세인상방발하는날강도미국과의협상을파기하라!>  
민중민주당석권호석방대책위투쟁연대
  - 1.29 민중민주당논평<한국>을<현금인출기>로삼는미제국주의타도하자!
  - 1.31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게바라<마두로석방!제국주의타도!미군철거!>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2회진행  
공동성명<약탈과침략을일삼는강도미제국주의를타도하자!>  
미군철수투쟁본부미대사관앞1165차자주통일시국기도회민중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연설
  - 2.3 민중민주당<반제투사민중지도자마두로석방!타도제국주의!>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2회진행  
민중민주당석권호석방대책위투쟁연대
  - 2.7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게바라<마두로석방!볼리바르혁명지지!제국주의타도!>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2회진행  
공동성명<만악의근원이며전쟁의화근인제국주의를타도하자!>  
미군철수투쟁본부미대사관앞1166차민중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연설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대상 준공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2026.1.19

동지들!

당 제9차대회를 앞두고 우리 국가경제의 자립화를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띠는 성과를 이룩한 룡성의 노동계급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함남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연관부문 일군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기계공업의 모체기업소가 자기의 기술력을 일정한 수준에 올려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보다 공고히 하고 전반적경제분야의 발전을 추동하며 잠재력을 더욱 확보할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줍니다.

경제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로 되는 기계공업의 질적개변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부상되고있는 오늘날 그레도 제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룡성기계연합기업소가 기계산업분야의 현대성을 지향하고 기술개건을 시작한 이 현저한 발전과 변화의 추이는 분명코 모든 연관부문과 우리모두에게 신심과 고무를 주는 진일보의 성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음의 사실을 이보다 더 큰 성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일개 기업소의 현대화라는 그 자체보다 이 진행과정에 당결정을 대하는 우리 일군들의 관점과 현재의 준비정도를 더 잘 알게 되고 우리의 진전과 발전을 저애하는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보신주의에 된 타격을 가한것입니다.

이는 현재와 앞으로의 우리 사업을 위하여 무엇이 주목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는가를 재확인시켜준것으로서 그 어떤 경제적성과보다 더 의미있는 성과로 됩니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기술개건사업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그 계획이 심의승인되고 해당 예산이 지출되어 추진된 당 제8기기간내의 핵심적인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먼저 표준으로 기술개건하는 문제는 기계공업분야의 당면한 기능복구와 실현가능한 하부구조의 보강, 전망적인 발전에서 관건적인 고리로 된다고 인정하였으며 국가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간의 심도있는 연구와 준비공정이 선행되었으며 이를 맡아할 지휘역량도 내각과 해당 부문의 권위있는 일군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현대화과정은 순수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일군들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하였습니다.

기업소를 새시대 현대화의 본보기로 만들데 대한 당결정의 진의에 어긋나게 기술과제서부터 구체적인 연구가 없이 작성되었을뿐 아니라 국가적인 검토와 심의도 바로하지 않아 전반적인 생산공정현대화방안이 황당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나마 공사과정에 법적문건인 기술과제서의 요구를 무시하고 생산설비들이 불합리하게 배치되는것을 방지한 결과에 현대화가 본도에서 완전히 탈선하게 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대상의 현대화가 마구잡

이식으로, 눈속임식으로 진행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군수공업부문의 현대화전문가그룹을 인입하여 그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우려했던바 그대로였습니다.

기술과제서에 생산공정현대화에서 필수적인 통합생산체계구성방안이 반영되지 않고 일부 생산공정의 자동흐름식을 실현할수 없게 되어있는것을 비롯하여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60여건이나 제기되었습니다.

몇가지 사실들만 놓고도 동서남북 향방이 없는 내각의 해당 간부들이 주관하는 현대화방안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어렵지 않게 가늠해볼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각사업의 고질적버릇의 집약적인 표현이고 맡은 소관에 불충실하고 무능한 경제지도일군들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명백한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짓은 분명히 당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내각 책임일군들은 현대화방안을 똑바로 세우지 못한 문제로 비판을 받고도 전혀 개준하지 않았으며 군수부문 지도일군들의 의견을 받아 개작한 현대화방안을 자기 관하에 국가적인 현대화대상들의 기술과제서검토를 전문으로 맡아하는 비상설검토그룹이 조직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수공업부문에 보내어 검토협의해줄것을 요구하는 책임회피의 너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즉 기업소현대화공정에 다시 그 무슨 문제가 제기되여도 자기들은 검토해준대로 했고 책임이 없다는것을 미리 명백히 해두려는 교묘한 몸사리기의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이런것들때문에 많은 노력과 자금을 낭비하고 하루라도 더 단축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잃으면서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였으며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있는 군수공업부문에 더 큰 짐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룡성기계연합기업소현대화사업의 시작에 앞서서도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편소하게 세우지 말고 과학적으로, 전망적으로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경제지도일군들속에서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무책임성과 거친 일본새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현대화에 대한 표상을 명백히 하고 안목을 틈을수 있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군수공장들과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생산시설들도 보여주었고 이 사업을 든든히 받침할수 있는 당적, 국가적조치들도 취해주었습니다.

그랬지만 당시 내각총리와 현재 기계공업담당부총리는 일을 되는대로 해먹었습니다.

내각부총리는 작년 12월 당 제13차전원회의에서 토론을 하면서 룡성기계현대화사업에서 저들이 저지른 잘못을 대충 비판하는 시늉으로 시작을 빼놓고는 자기의 관할권안의 기관들을 동원한 심의체계를 세워줄것을 제기한다느니 뭐니 하며 제가 찾아할수 있는 일, 제가 응당 했어야 할 일을 제기하면서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중앙을 우롱하려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가 당전원회의를 우롱하자고 접어드는데 대하여 되게 비판해놓고 주시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처신하고 돌아가는것을 보니 전혀 책임의식이라는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응당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양심과 초보적인 책임의식까지 쫓버렸으니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있어도 없는것과 같고 없어도 빈자리가 나지 않을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를 더 가져야 하겠습니까.

포화를 헤쳐야 하는것도 아니고 빈터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일도 아니며 부여된 직능을 정확히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마저도 감당해 내지 못하는 이런 일군들에게 무슨 이유로 국가경제지도의 중임을 그냥 맡기겠는가 하는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눈앞의 난관에 포로되어 당정책을 회의적으로 대하고 보신에 버릇되어 변천하는 주위세계의 기운을 제대로 감각하지 못하며 우리 전진을 저해할만큼 보조를 맞출수가 없는 사람들을 체면이나 봐주면서 끼고 있는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유해로운것입니다.

전 내각의 사업체제와 지도간부들의 자질과 능력, 태도는 이 한개 기업소현대화사업을 놓고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보태여 말한다면 이미 총화는 되었지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사건을 놓고도 당시 총리와 내각의 무책임성을 잘 알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을 담당한 내각부총리는 지금의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반당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원래 그 모양 그 꼴밖에 안되는 사람으로서 중임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즉 쉽게 한마디로 비유해말한다면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워놓았던것과 같은 격이었고 우리 간부등용사업실천에서의 우발적인 실수로 보아야 합니다.

황소가 달구지를 끌지 염소가 달구지를 끄니까.

간부등용에서도 지금 체제상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적격자적능력에 대한 간부자격심사와 비준체계를 옳게 적용하지 못하고 순수 경력만 따라잡기를 하고는 내신하고있기때문에 지금 행정간부대열에 문제가 많습니다.

간부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부총리대신 새 정부구성때 다른 사람을 등용할것을 총리동무에게 권고합니다.

부총리동무는 제발로 나갈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발로 나가시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총리동무를 해임시킵니다.

이미 비판되었지만은 전 내각총리는 물론이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개건현대화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태공하고 구경군노릇만 해온 정책지도부문의 책임간부들도 마땅히 가책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대규모기계제작기지를 전변시킨 오늘의 성과는 종전에 비한 비약이고 종전에 비한 현대화로서 대내외에 널리 소개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과정의 실지성과는 전 총리나 부총리를 비롯한 지금의 경제지도역량이 나라의 산업전반의 정비사업과 기술개건을 끌고나가기 힘들다는 정확한 결론을 찾고 우리 당이 명백한 결심을 내릴수 있게 된 그것입니다.

동무들!

새시대 기계제작공업의 하부구조를 갱신하고 창설하는 노정에서 나타난 편향에 대하여 오늘과 같이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본것은 필수적이고 유익한 일이며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군들의 보다 원숙한 사색과 실천으로써 국가의 변천을 이끌어내고 한해한해의 더 큰 변화로써 원대한 이상을 실현해야 하는

책임적인 시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모두들 꼭 명심하십시오.

폐배주의와 무책임성, 비적극성에 너무도 오래동안 습관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온 관행과의 결별은 앞으로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로 된다는것입니다.

일군들속에 뿌리깊은 극심한 무책임성, 보신주의와 건달풍을 결정적으로 적출해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적개변부터 선행시켜야 할것입니다.

당정책을 보위하고 당결정집행에 투신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실은 자기 안위와 보신에 신경을 쓰고 현실도피와 근시안적인 태도를 털어버리지 못하는 현상들에 과녁을 정하고 사상교양, 사상공세를 들이대야 합니다.

또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해당 부문, 단위의 책임일군들이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부단히 연구하고 과학과 기술을 적극 탐독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경제의 재건을 주도해나가야 할 지도일군들부터가 원리와 수자를 홀시하고 현대화에 대한 지향도 표상도 없는 가슴아픈 실태를 종식시켜야만 우리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경제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고 응당한 혁신과 진보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군들을 위한 과학기술학습제도도 내오고 최신과학기술을 일하면서 배우는 체제도 새로 내오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실지로 현대화, 선진화의 시대적흐름에 부응할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에 활용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변천이 깨우치는 경험과 교훈을 인민경제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급속한 도약을 위한 귀중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개건현대화는 새시대 기계공업의 본보기, 표준을 마련하고 우리 국가의 산업전반의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한 선결적인 공정입니다.

룡성이 일어서야 다른 기계공장들도 일어설수 있고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이 들고일어나야 우리 국가경제전반이 일떠설수 있습니다.

기계공장들의 개건현대화를 어떻게 실현하겠는가 하는 방대한 계획사업들의 순차를 가리킨 노정도는 당에서 이미 명백하게 제시하였고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2단계 개건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실무적조치들도 취해졌습니다.

오늘의 준공식을 계기로 분명한 경종을 다시금 울렸습니다.

내각과 경제부문의 모든 일군들 그리고 경제정책지도부문의 일군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인민경제 여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계공업분야의 현대화를 실속있게 가속화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공업만이 아니라 급속, 전력, 석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을 선진적인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학적인 방안들을 하나하나 세우고 완강히 집행하여 나라의 경제전반을 일신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명백히 강조하건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서 첫째로 중요한것이 사람을 준비시키는것이며 그 첫째중의 첫째는 우리의 지도일군대열을 견실하고 수준있는 혁명인재들로 꾸리는것입니다.

당과 조국앞에 자기가 지닌 의무의 막중함을 항상 자각하고 그에 무조건 충실하기 위하여 배우고 탐구하고 노력하는 일군들에게는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지향적인 설계와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우리 대에 반드시 세기적낙후성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는 현대화되고 선진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룡성의 미더운 노동계급과 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

동지들!

부흥변영으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오늘을 걸머지고 미래를 당겨오는 힘있는 개척자, 진정한 투사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새로운 결심, 새로운 안목, 새로운 열정으로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선진성에 활력을 부여하는 거창한 혁명사업에 더 힘차게 궤기해나십시오.

우리 지도간부들과 생산자대중모두가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하여 당의 현대화정책의 진수와 요구를 다시금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단계 개진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헌신한 모든 동무들과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노동계급과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 진행** 2026.1.21

나라의 명산, 명소들에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문화휴양지와 요양소들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그것이 우리식 문화적진보의 거점으로, 근로자들의 문명한 생활로 이어지게 하려는 위대한 당중앙의 의지와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 예로부터 유명한 온포근로자휴양소가 국가의 온천문화를 대표할수 있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일신되어 자기의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고있다.

지형지세가 수려한 명당자리에 온천치료 및 보양시설들, 종합적인 봉사기지가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특색있는 건축군을 형성한 온포근로자휴양소는 어머니당이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는 사랑의 선물이며 대대손손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켜나갈 귀중한 재부이다.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이 1월 20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준공식장은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시책의 혜택속에 질적으로 개선된 운택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부강한 내일을 당겨오기 위하여 열화의 심혼을 다 바쳐가는 우리 당의 은혜로운 사랑이 떠올린 문명개화의 실체를 마주한 참가자들의 걱정과 환희로 설레이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즐기차게 열어나가시는 온 나라 대가정의 친근한 아버이를 우러러 드리는 최대의 경의심이 열광의 환호성으로 분출하였다.

준공식에는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연관부문, 함경북도과 경성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건설자들, 휴양소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이일환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근 80년의 연혁을 새겨온 온포근로자휴양소가 종합적인 문화휴식기지, 치료봉사기지로 그 모습을 완전히 일신하고 지방의 발전 면모를 떨치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일떠서 인민들에게 안겨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훌륭한 명소가 안고있는 특유의 정서속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사회주의 우리 생활에 대한 보다 큰 보람과 희열을 느끼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소문난 명승지인 온포지구의 새로운 전변은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시었던 2018년 7월의 그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경치 좋은 곳에 우리의 멋이 살아나는 세련된 건축미와 각이한 봉사기능을 갖춘 휴양소신설에 바쳐오신 원수님의 크나큰 노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휴양소의 낡고 침침한 시설들과 봉사환경에 비낀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얽힌 경중을 울리시며 인민들의 편익과 높아가는 문화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휴양소를 전면적으로 새로 건설하여 나라의 귀중한 재부가 인민들에게 참답게 복무하도록 하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원수님께서 건설현장을 거듭 찾으시며 모든 요소들을 부단히 진보하는 새시대의 높이에서 완성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는것을 온포휴양지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산천의 경치가 그대로 인민의 건강증진과 정서생활에로 이어지게 하시려 마음쓰신 뜨거운 진정에 의하여 무성한 숲속으로 이어진 산보길과 사계절 휴양소구역을 감도는 하천이 독특한 자연미를 돋구게 되었으며 온천치료의 사명과 용도에 맞게 기능적요구들이 충분히 구현된 완전무결한 창조물이 인민들에게 안겨지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진정 온포근로자휴양소신설공사의 나날은 우리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인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며 지역의 자연지리적특성과 잠재력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확실한 토대로 전환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또 하나의 교본이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명칭이 보여주는것처럼 이곳 휴양소는 근로자들을 제일로 위하고 모든 복리의 향유자로 내세우는 우리당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결정체이며 이것은 그 어떤 자연미나 건축술로도 표현할수 없고 역대의 금전으로도 산출할수 없는 이 창조물의 진가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충성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더욱 문명하고 아름다울 조국의 내일을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었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그대로 변혁의 장관으로 펼쳐진 준공식장에 꽃보라가 흠날리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포근로자휴양소를 돌아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포근로자휴양소의 매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의 모든 요소가 주변의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생활영역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것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하여 피력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가 오랜 온포온천지대에 부단한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에 걸맞는 또 다른 문화휴양지, 문명의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몇해전 이곳에 왔을 때 당의 영도업적이 깃든 사적건물이라는 간판은 걸어놓고도 휴양소의 모든 구획과 요소들이 비문화적이고 운영 또한 비위생적으로 하고있는 실태를 심각히 비판하던 때가 기억난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다시 개진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영도업적은 간판이나 말과 글로가 아니라 인민들 누구나 반기고 환호하는 투쟁의 결실로써, 인민들의 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으로써 고수하고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여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인민적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우리는 꾸준하고 혁신적인 개척과 진보로써 사회주의문명창조에서도 시대를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포근로자휴양소에 대한 관리, 지도를 현재 노동성 휴양관리국이 맡아하고있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전국도처에서 인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새로운 관광지들과 휴양소, 요양소들이 대대적으로 일떠서고있는데 현재처럼 여러 성에서 문화생활봉사거점들을 제각기 분산적으로 관할하면 당에서 품들여 마련해준 훌륭한 문화봉사기지들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설비, 물자보장은 물론 시설관리, 기술관리, 인재관리도 전망적으로, 효율적으로 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명개화의 새시대에 맞게 전국에 분포된 치료 및 휴양, 요양기지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봉사에서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합리적인 기구적대책을 세우는 문제를 연구해볼데 대한 지시를 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들은 끊임없이 심화되어야 하며 이것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굳지높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적범위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다양한 문화생활영역과 공간을 부단히 확대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포근로자휴양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연관단위들에서 설비시운전을 비롯한 운영 및 봉사준비를 잘하여 2월중에 휴양소를 개업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준공식참가자들은 시간지역고유의 멋과 특색이 잘 살아나면서도 현대건축술의 제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종합적인 문화휴식 및 요양치료봉사기지를 경탄속에 돌아보면서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가슴뜨겁게 체감하였다.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새 모습으로 개변된 온포근로자휴양소는 나날이 흥해가는 우리의 세월과 함께 인민들의 생활속에 정답게 깃들여 행복의 웃음을 세세년년 꽃피우게 될것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조각창작사업을 지도하시었다 2026.1.26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 25일 만수대창작사를 찾으시여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에 건립하고 설치할 조각창작사업을 지도하시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지도간부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만수대창작사의 책임일군들이 정중히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상징탑, 중심군상, 부주제군상, 외벽장식조각판 등을 보시면서 창작정형을 요해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조선의 훌륭한 아들들, 명예의 수호자들의 전설적인 공훈과 빛나는 삶을 길이 전하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전반적인 조각창작사업이 기념비적가치와 상징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위훈기념관의 상징탑형상을 세부적으로 잘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까지 온 나라 곳곳에 이수복, 조근실, 강호영과 같은 1950년대 조국방위전에서 배출된 영웅들의 동상이 많이 건립되었는데 오늘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이 나라의 평범한 병사들의 초상이 조선인민군특유의 정치사상적강대성을 체현하고 명예의 단상우에, 존엄의 대돌우에 거연히 서있다고, 이것은 단순한 계승만이 아닌 우리 위업의 승리를 증언하는 고귀한 현실이라고, 전승세대의 특출한 영웅성이 전군의 대중적영웅주의로 승화된 여기에 우리 당의 장구한 정치사상강건건설사의 긍지높은 총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는 시대앞에 정신력의 강자는 백전필승한다는 힘의 법칙, 불변한 철리를 증명해보였다고, 이것은 이 세상 어느 나라의 군대도 가질수 없는 오직 우리 군대만의 절대의 힘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하나의 조각상앞에서도 영웅전사들의 높뛰던 심장이 들려주는 필승의 철리를 새길수 있게, 그들에 대한 영원한 추억을 간직할수 있게 모든 세부요소에 이르기까지 고매한 예술적형상과 섬세한 완벽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상들마다에 우리 군대의 전투적기개와 맹렬한 공격정신, 승고한 전우애와 열렬한 조국애를 보다 실감있게 상징화하며 용사들의 영웅전과 신성한 넋에 드리는 조국과 인민의 경의를 특색있게 부각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 조각형상의 내용적요소들사이의 배치와 배열에서 조형적세련미를 보장하는 문제, 조각형식과 건축구조물들을 조화롭게 통일시켜 기념비로서의 특색을 살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비롯하여 창작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히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수대창작사의 창작집단이 참된 애국자들에게 드리는 우리 당과 정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경의심을 최대의 성심을 안고 훌륭한 창조의 결실로 구현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 대구경방사포무기체계시험사격 진행 2026.1.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1월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대구경방사포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하시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장 장창하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시험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오늘의 시험은 전략적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데서 대단히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이 무기체계의 가장 위력한 특성을 가장 적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갱신을 하였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되었기때문이다.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데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방사포탄의 기동성, 지능성, 명중성이 비할바없이 갱신되었다.

새로 개량된 포차의 기동성 또한 완벽하다.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특징으로 된다.

이러한 성과에 도달하는 과정은 결코 험치 않았지만 제시된 과업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훌륭히 수행되었다.

나는 최소 가까운 몇년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것이며 그러한 능력을 가질수 없을것이라는것을 확인한다.

이 시험을 지켜보았다면 우리 국방기술의 현대성과 발전잠재력을 적수들은 분명히 인지하게 될것이다.

이는 우리 국방기술의 부단한 갱신과 끊임없는 진화에 대한 명백한 입증으로 된다.

늘 강조해왔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데 있다.

이러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것 자체가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이다.

그것은 오늘날 자체방위를 위해 필수적이지 아닐수 없다.

나는 이 무기체계를 완성하는데 수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온 국방과학연구집단에 감사를 전한다.

우리와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는 세력에게는 이 시험이 가지는 의의와 결과가 작잡한 고민거리로, 엄중한 위협으로 다가갈것이다.

우리 포병은 가장 집초적이고 파괴적이며 대량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전쟁억제의 책임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확실한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실시하는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는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 은률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착공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2026.1.29

동지들!

오늘부터 우리는 또다시 지방발전정책실행을 위한 2026년의 보람찬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거창한 변혁시대의 전위에서 이미 두해에 걸쳐 커다란 애국공적을 세운 미더운 군인들,

제4군단 124연대 지휘관, 병사들!

성스러운 시대적사명과 뜨거운 열정을 안고 나라의 곳곳에 새 생활의 기쁨을 안아오며 지역경제발전과 문명개화의 새 장을 열어나가고있는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전투적인 격려를 전합니다.

아울러 이 보람넘친 사업이 해를 이어 착실한 결실을 거두도록 책임적이고도 헌신적인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각급 비상설추진위원회 성원들

과 설계 및 연관부문의 일군들, 근로자들에게도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렇게 지방변혁을 향해 가는 또 한해의 거창한 투쟁의 출발선에 서있습니다.

이제는 연두에 지방발전정책대상들의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전국의 도, 시, 군들에 있어서 어길수 없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첫 사업공정으로 되었습니다.

새해 지방건설사업의 개시로 되는 오늘의 착공식은 우리가 하는 이 영예로운 투쟁의 진의를 다시금 새겨주고있습니다.

지방발전정책실행 3년째인 올해에는 여기 은률군을 비롯한 나라의 20개 지역에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보건시설, 종합봉사소들이 다같이 일떠서게 되며 그러면 전국의 시, 군들의 근 3분의 1이 개벽되는것으로 됩니다.

이 사실은 전국적범위에서 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동시적으로 개변향상시키려는 확고한 의지의 실증으로 되는 동시에 확대심화되는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줄기찬 기세와 연년이 장성하는 우리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이것은 당정책의 성공적결실이며 정확한 집행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올려세울 결심으로 시작한 이 사업에서 우리는 완강한 개척으로써 시대가 요구하고 누구나 환호하는 훌륭한 결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있으며 지방발전 사업을 확대된 규모에서 안정적으로 내밀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마련하였습니다.

2년간에 걸친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실행과정은 이미 나라의 많은것이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지난 세기의 뒤떨어진 지방경제토대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시키고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있습니다.

지방공업이 중앙공업 못지 않게 발전하여 그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있습니다.

지방의 생활수준, 지방의 문명도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정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잡고있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지방 발전을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동원할것이며 그 연차별계획들을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철저히 실행해나갈것이라는것을 확인합니다.

동지들!

오늘 착공식에는 은률군의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에 동원된 연대장병들과 함께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군정책임간부들 그리고 각급 124연대들의 총화회의에 참가했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방의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개선의 든든한 밑천으로 될 고귀한 재부들을 연이어 안아오고있는 동무들에게 다시한번 높은 평가와 감사를 표합니다.

동무들은 오늘날 지난 시기 누구도 실행하지 못했던 우리 당의 혁명적 정책을 관철하는 전위에 서있으며 책임적이고 완벽한 실천으로 당정책을 옹호보위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 각급 124연대 관병들은 지난 2년동안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절대충성, 결사관철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군대특유의 기질과 전투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자기의 임무에 충직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위업을 위하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양심과 헌신의 자욱을 고인 그 수고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동무들의 전인불발의 투지와 비상한 노력을 의해 지방발전정책실행에서 보다 고무적인 결실들이 이룩될것임을 확신합니다.

지휘관동무들!

지금까지보다 훨씬 방대하고 어려운 올해의 공사과제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예비는 철저히 군인대중의 양양된 정신력과 높은 창조력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한바이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순한 건설노력이 아니며 건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위업수행의 전위대이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입니다.

우리 당이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앞장에 인민군대를 세운 중요한 목적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어떤 일이든 주저없이 맡아 수행할수 있는 높은 실천능력을 갖춘 참된 혁명가들로 키우자는데 있다는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124연대를 비롯하여 지방건설에 동원된 부대, 구분대 지휘관동무들은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군인건설자들의 정신적성장애 특별히 품을 들여 모두들 당의 혁명사상의 견결한 신봉자, 옹호자, 관찰자로,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애국자들로 육성해야 합니다.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제3년기 사업에 진입하게 되는 전체 군인건설자동무들!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에 기여할 창조물들을 일떠세워야 할 신성하고 보람찬 중대임무가 동무들에게 부여되어있습니다.

당의 전위대, 혁명의 수호자, 인민의 아들딸로서의 본분을 지켜 지방의 근본적인 변혁기를 줄기차게 이어나갑니다.

국가의 변명과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한 창조투쟁에서 조선인민군의 기질과 본태를 남김없이 과시하며 더욱 용감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은률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주민 여러분!

이해말에는 바로 이곳에도 현대적인 공장들과 보건시설, 봉사시설들이 의심할바없이 일떠서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은률땅도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될것입니다.

반드시 정성을 고여 은률땅에도 전변을 안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군안의 주민들과 일군들모두가 건강하여 군의 내일을 가꾸어나가는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해나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률땅인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2026.2.2

전국의 격동적인 변혁으로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눈부신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당중앙의 드립없는 의지와 탁월한 영도력은 이 땅의 한해한해를 신화적인 전변의 새 전기로 아로새기며 인민의 재부로 영원할 융성과 변영의 실체들을 줄기차게 떠올리고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일심충성의 격류가 영광의 당대회를 마중하는 온 나라 강산에 더욱 뜨겁게 끓어치는 속에 조국의 서북면 압록강기슭에 초

유의 대온실군, 이상적인 농장도시가 일떠서 준공하는 대경사의 시각을 맞이하였다.

연년이 닳치는 자연재해로 세찬 강바람에 모래먼지만 흩날리던 위화도지구를 자체의 튼튼한 잠재력을 갖춘 지방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로 전변시킬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여 거창한 지역개발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으며 건설과정을 통하여 세대대들이 애국의 열정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된 믿음직한 혁명의 계승자, 자생자결의 강자들로 자라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었다.

천수백동의 각이한 유형의 현대적인 온실호동들과 남새과학연구중심, 문화주택들, 다양한 문화생활기지와 특색있는 원림경관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김정은시대의 위대한 변천사를 증견하는 또 하나의 긍지높은 기념비적창조물이며 우리의 청년건설자들이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충성의 선물이다.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식이 2월 1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준공식장은 현대적인 대규모온실남새생산기지의 완공으로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의 정당성과 실천집행력, 조선청년의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을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한 청년전위들과 군인건설자들의 드높은 자긍심과 충천한 기개로 끓어번지고있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가장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흑심한 자연재해를 입었던 위화도지구에 인민의 웃음이 만발하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데 이어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있게 주도해나갈 <보물섬>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신 아버이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 청년돌격대원들, 평안북도와 신의주시의 일군, 근로자들, 관계부문,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일군,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노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하여 시작한 더없이 영예롭고 보람찬 온실종합농장건설이 마침내 결속되어 불과 한해사이애 초유의 대온실군이 장쾌한 경관을 펼쳤다고 하면서 오늘의 준공은 보다 위대한 목표를 향한 활기찬 진군으로 이어질 2026년의 경이적인 변천을 상징하는 사변적성가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투쟁에서 전위대의 영예를 펼쳐온 긍지높은 행로에 이어 현대적인 대농장도시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당 제9차대회에 참가 선물한 미더운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에게 도안의 전체 인민들의 마음을 합쳐 뜨거운 감사와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다.

자연의 재앙이 휩쓸었던 땅에 수천세대의 살림집을 짓고 견고한 제방을 쌓는것만도 기적으로 여기던 그때 최대규모의 온실농장을 건설하 실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신 김정은동지께서 평북도인민들에게 이미 건설된 온실농장들에 비해 현대성과 선진성, 실리성에 있어서나 건축수준에 있어서 또 한단계 도약한 온실농장을 안겨주시려 일일이 대책

을 세워주시고 여러 차례 건설현장을 찾으시며 미흡한 점들을 바로잡아주시면서 개혁과 창조의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에서 그토록 증시하는 온실농장건설을 인민군대와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시고 애국으로 뉘뉘는 청년들의 삶을 영광의 단상에 값높이 내세워주신 자애로운 스승, 친근한 아버지의 육친의 뜨거운 정이 진함없는 투쟁의 활력소로, 기적창조의 무진한 힘으로 되었기에 우리 청년건설자들은 불굴의 난관극복정신과 강철의 기개와 투지로 짧은 기간에 굴지의 대온실농장을 거연히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조선노동당이 향도하는 지방발전의 성업은 불모의 땅도 낙원으로 전변시키며 인민의 숙원을 위대한 현실로 앞당겨오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모두 인민을 위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더 과감히 분투하고 더 용감히 내달리며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지금 우리모두는 스스로도 놀랄만큼이나 대단한 변혁을 마추고있다.

여기에 무슨 요란한 말과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백마디, 천마디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 표현할길도 없는 현실을 목견하고있다.

대대로 물란리를 숙명처럼 여기던 이곳에 주민들이 천년홍수에도 끄떡없을 든든한 방벽의 보호속에 흥겨운 노동으로 가꾸어갈 새 삶의 터전이 펼쳐진것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다.

우리의 젊은 세대는 자기의 청춘시절처럼 아름답고 자기의 명성처럼 긍지높은 새 전변을 자랑스럽게 이루어놓았다.

보람찬 대자연개조투쟁에 꺾기한 그날로부터 우리 군인들과 청년들은 조국의 귀중한 한 부분에 청춘의 슬기와 열정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드물지 않는 신념과 미래에 대한 확신, 조국에 대한 사랑을 뭉트이며 그우에 세세년년 복락을 누려갈 인민의 재부를 쌓아올렸다.

바람세찬 건설장에서 불굴의 용맹과 열혈의 기개로써 고귀한 투쟁기를 엮어온 젊은 혁명가들의 값높은 투쟁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기념비적창조물앞에 설수 없었을것이다.

우리 군인들과 청년들은 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창조의 성과로써 우리 혁명의 가장 강위력한 정예대오, 전위부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한번 증명했다.

드넓은 섬지구의 한치한치에 너무도 진하게 고여진 열혈의 젊음과 뜨거운 정성은 고귀한 애국의 자욱으로 길이 남을것이며 이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역사에 몇몇이 찍어질것이다.

뜻깊은 자리에서 거창한 건설투쟁의 주력이 되어 영웅적인 위훈으로 당과 혁명에 충성하고 시대의 거세찬 전진을 양양시킨 미더운 장병들과 청년건설자들의 애국충심에 경의를 드리며 조국과 인민의 축복을 삼가 전한다.

오늘과 내일의 당당한 건설자, 용감한 개척자들의 애국의 부모와 더불어 조국의 대지는 더 풍요롭고 아름다와질것이며 우리의 이상과 결심은 반드시 줄기찬 전진과 승리로 빛날것이다.

진심으로 다시한번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

조선청년의 젊음으로 영원히 푸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위대한 변혁과 융성의 시대를 위하여 올해에도 더욱 용기백배 나아가야 한다.

끝으로 지역주민들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의 준공을 다시한번 축하한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슬하의 천만자식모두를 사랑의 한뼘에 안아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스승, 친근한 아버지를 걱정속에 우러르며 영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이프를 끊으시었다.

위대한 당중앙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과 격정으로 설레이는 준공식장에 축포탄들이 날아올라 2월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충성의 마음을 담아 군인건설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신의주남새과학연구중심을 찾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하늘땅을 진감하는 영광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고마움과 변함없는 계승의 의지를 담아 청년돌격대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인민, 혁명의 부름에 혁명적진출로써, 용감하고 열정적인 청년특유의 배짱과 기세로써 화답하며 조국의 서북변에 거창한 변혁의 영웅전기를 아로새기고 어머니당대회에 불멸할 존엄과 영광을 선물한 청년전위들에게 따뜻한 손저어주시며 고무격려해주시었다.

준공을 기념하는 의식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이프를 끊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도간부들과 함께 신의주남새과학연구중심을 돌아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연구집단이 온실농장의 경영관리와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지능형통합생산체계와 가치있는 재자원화기술들을 도입하여 생산원가와 소비를 극력 낮추고 큰 실리를 얻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온실남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신의주남새과학연구기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는 남새과학연구뿐 아니라 온실남새재배와 관련한 전국적인 기술봉사도 진행하는 학술지도단위, 과학연구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바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실남새생산을 늘이자면 재배의 과학화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남새과학연구사업을 생산과 밀접히 결합시키며 그 과정에 이룩한 선진기술과 경험을 나라의 모든 온실농장들에 적극 도입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실의 규모에 있어서뿐 아니라 온실남새의 재배방식과 기술적도대측성, 생산량에서도 세계를 따라앞서 인민들이 하루빨리 덕을 보게 하자 이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온실남새의 품질과 맛, 영양가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과학기술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좋은 품종의 남새종자들을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전국적으로 수많이 일떠선 온실들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적인 기구를 내오는 문제를 비롯하여 온실운영과 남새과학연구에서 나서는 일련의 과업들을 밝히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중앙 및 현장지휘부 일군들을 만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

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양어와 남새재배를 겸한 태양열온실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온실호동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조에서는 물고기들이 옥실대고 띄움식재배들에서는 부루, 영양배추가 푸르싱싱 자라는 호뜻한 광경과 도마도, 고추, 오이를 비롯한 갖가지 농작물들이 끝간데없이 펼쳐진 남새바다를 바라보시며 정말 장관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실남새생산에서도 기본은 종자문제이라고, 이곳에서는 각이한 남새품종의 종자유종과 설비현대화를 항구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지금 지방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중요한 변화과정을 경과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에 진행한 가장 방대한 사업들중의 하나이며 높은 목표와 이상을 안고 전국의 획기적인 변혁을 위하여 분투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직관해주는 귀중한 부흥의 재부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의 잔디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우리 군인들과 청년들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이 숨배여있다고 하시면서 모범적인 군인들과 청년건설자들에게 국가표창도 내신하고 총화평가사업도 크게 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신의주온실종합농장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시며 기념비를 제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인민들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역인민들의 복리증진과 더욱 문명부유해질 밝은 미래를 따듯이 축복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 청년전위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땅의 한 부분을 개척시키는 거창한 건설투쟁의 전위에 우리 군대와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거룩한 영도의 자욱을 거듭 거듭 새기시며 사랑과 정을 다해 혁명적성장의 걸음걸음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웅대한 지방발전구상과 결심을 절대의 진리로 간직하고 불같은 애국의 열정과 노력투쟁으로써 이곳 섬지구를 새시대의 이상적인 농장도시로 훌륭하게 전변시킨 우리 군대 장병들과 청년건설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화도지구의 경이적인 전변은 우리당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인 산 증견인 동시에 당의 위업을 창조의 기적들로 역척같이 떠받드는 우리 군대, 우리 청년들의 불멸의 위훈과 영예로운 행적에 대한 시대의 긍지높은 기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부강을 위해 바쳐지는 삶을 가장 큰 영예로 간주하고 인민의 재부를 일떠세우는 투쟁에서 청년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의 계승자들, 진정한 청년애국자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힘이고 제일가는 자랑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성스러운 조선청년운동사에 길이 빛날 또 하나의 위대한 투쟁의 기념비이고 새시대 영웅청년들의 값높은 위훈의 상징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억센 신념과 열렬한 지향을 지니고 자기의 사명과 시대적의무에 언제나와 같이 충실한 믿음직한 계승자들이 있어 조선혁명은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청년들, 군관, 병사들이 용솨음치는 청춘의 힘과 열정, 슬기와 용맹을 더욱 배가하며 강대하고 아름다울 우리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조선청년의 명예를 위하여 더 용감히, 더 씩씩하게 투쟁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전체 청년건설자들은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드는 길에 청춘의 값높은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찬란한 행복이 있음을 역척불변의 철리로 더욱 깊이 새겨안으며 당중앙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합성을 우렁차게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어머니당 제9차대회가 충성의 노력적 선물을 안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에 당당히 들어서게 될 장한 청년건설자들을 기다리고있다고, 우리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 열화의 진정에 무한히 격양된 청년전위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당의 숙원을 더욱 완강하고 줄기찬 노력투쟁으로써, 창조의 기적으로써 높이 떠받들며 2026년의 새 전투기룩장에 보다 큰 기적과 노력적위훈을 새겨갈 불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준공식참가자들은 현대적인 온실들과 남새과학연구중심, 다양한 문화생활기지와 원림녹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의 곳곳을 감명속에 돌아보면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창조의 기준, 문명의 높이를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의 준공은 우리 위업, 우리 투쟁의 필승불패성과 양양한 전도에 대한 확신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자력의 기치높이 지방의 거창한 변천을 앞당기며 힘차게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을 뚜렷이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2026.2.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연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당과 정부의 중요지도간부동지들과 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새로 조업하는 여기 삼광축산농장에서 선진성과 현대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농촌의 또 하나의 독특한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모두가 돌아보면 느끼게 되겠지만 오랜 세월 인박허온 산골마을과 농촌생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풍경이 참으로 인상적 일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분명히 다시한번 우리의 의지를 가다듬어야 하며 우리가 이상하는 변혁의 높이, 개변의 정도를 직접 다시 새기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을 해놓으려면 이렇게 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개변의 기준이며 축도입니다.  
보십시오.

태고적부터 내려오는 산천경개박에는 눈에 드는것이 없었고 농촌의 세기적낙후성이 다분했던 운전군의 막바지골이 현대농촌과 현대축산의 미래를 직관하게 하는 표준실체로, 청사진으로 전변된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런것을 두고 진짜 천지개벽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농촌발전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삼광축산농장은 그 중요성과 의의에 있어서 새로운 대규모온실농장이나 대동력기지에 못지 않게 제8기 당 중앙위원회의 사업의 일면을 부각시키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기록으로, 재부로, 경이적인 창조물로 됩니다.

나는 먼저 우리 국가의 농업과 우리 농촌의 정확한 발전을 목표로 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이름없던 삼광리를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훌륭한 본보기로 일떠세우는데 기여한 평안북도안의 건설자들과 여러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농촌이 미구하여 반드시 가당게 될 문명과 부흥의 이상향에 남먼저 삶과 행복의 주소를 정한 삼광축산농장의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모든 가정들에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크게 소문도 없이 변모된 삼광리의 이 풍경은 한두해사이에 갑자기 생겨난것이 아닙니다.

새것의 탄생이란 항상 그러하듯이 여기에도 결코 수월하다고 할수 없는 고심과 노력이 투여되고 순탄치 않은 과정이 동반되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부림없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숙원이며 그 실현의 한가지 중점목표로서 젓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표준축산농장을 건설하는 사업은 이미 수년전에 구상되고 포치된것입니다.  
지금 각지 농촌들에서 하고있는것처럼 지대정리나 하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새로 짓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선진적인 축산기술과 방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개념과 실현방식부터 완전히 새로운 현대농촌의 체모를 형성하는 이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기성의 관념과 전례에 의존하지 말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의것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집요한 타성과 함께 이 농장을 개변시키기 시작하던 당시 마주했던 복합적인 도전으로 하여 본격적인 건설과정에도 여러차 세부목표와 설계를 갱신하고 개작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농장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는것은 결코 나라의 한 지점에 선전용이나 참관대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농촌, 우리 축산의 금후 발전방향을 그려줄 새 출발점, 혁신적인 기준을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삼광축산농장의 현대화를 완벽하게 결속하려면 공력을 더 들여야 할 부분들도 있고 일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서도 농장건설의 진목적과 그 실체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기준을 제대로 만드는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나 목표하고 실현해도 여직껏 모든 일을 비과학적으로 똑똑한 기준도 없이 대충대충 해놓던 버릇부터 떼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 시범적인 사업목표의 성과적달성을 위해 당중앙위원회 중요부서에 직접 과업을 주고 맡아 주관하게 하였는데 정확히 수행하였습

니다.  
삼광축산농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현대농촌, 현대축산의 본보기입니다.

너무도 오래동안 당연한것으로 굳어질대로 굳어진 축산과 농산, 농촌마을에 대한 전통관념을 깨뜨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보화, 지능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삼광축산농장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손꼽힌다고 하는 축산기지들과 대비가 안되게 월등합니다.

사양공들이라고 하면 의례히 산밭을 타면서 피약별과 비바람도 무릅쓰고 방목을 해야만 했던 때는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노력과 부지를 절약하면서도 계절에 관계없이 젓을 생산할수 있는 염소와 젓소들의 옥내사육방법을 받아들인 이 농장에서는 관리공들이 현대적인 축사에 앉아 조종체계를 다루며 개체별로 먹이보장과 수의 방역과 같은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 공업적방법으로 정확히 할수 있게 되어있으며 젓소나 염소들도 다 우량품종입니다.

뿐만아니라 착유공정과 운반, 젓가공공정이 완전히 자동화되고 사료가공과 먹이생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정들이 공장화되었으며 여기에 현대적인 축산연구분소까지 배속되어있는것이 생산장성과 축산기술발전에 더없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체화, 축산과 농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고히 실현되고 축산농장의 특성에 맞게 생산과 경영활동상황을 실시간 장악하고 분석, 지휘할수 있는 지능형통합생산체계가 확립된것은 풀먹는집짐승을 기르는 부문에서는 이 농장이 처음입니다.

이런 우점들은 우리가 농촌문제, 농민문제해결에서 항상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하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의 노동계급화, 선진화, 문명화를 촉진시키는데도 유리한 요인으로 됩니다.

축산현대화의 제반 요소가 전례없는 경지에서 실현된 삼광축산농장은 이제 높은 생산성에 의한 농장수익과 농장원생활의 제고가 국가적이익과 조화롭게 결합된 실리있는 농장으로 될것입니다.

현시점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한두해전 광천닭공장을 우리 나라 가공업의 본보기로 만들어놓았다면 풀먹는집짐승기르기에서는 삼광축산농장이 본보기로 됩니다.

이 농장에서 생각지도 못하던 치즈, 바다와 같은 젓제품들이 연속 나와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의 식생활에 보탬을 주게 된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삼광리는 현대화된 축산기지이면서도 나라의 4,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단위로서의 모든 기능과 징표를 높은 수준에서 갖춘 교본적이고 이상적인 농촌입니다.

교양구획과 문화생활구획, 살림집구획이 정연하게 배치된 리소제지마을은 물론 기능과 용도에 부합되면서도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이 없게 꾸려진 각 분장들과 작업반, 가공장들의 면모는 농촌의 도시화, 산골마을의 문명화에 대한 훌륭한 실물교육으로 됩니다.

학교와 유치원, 병원과 약국, 상점, 문화회관, 편의봉사건물과 같은 공공시설들도 흠잡을데가 없습니다.

생태환경과 원림조성에서도 본보기입니다.

경지면적을 제외한 모든 구획들에 생명을 찾아볼수 없게 규모있게 포진된 지피식물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조화를 이룬것은 당정책의 정확한 집행입니다.

치산치수가 잘되어 주변산들이 수림화되고 저수지, 하천기슭이 정서

적인 휴식공간, 이채로운 공원으로 변모되었으며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전력생산시설들까지 들어앉은 삼광리의 전경은 상상력이 뛰어난 화가라고 해도 쉽게 그려낼수 없을 명화폭입니다.

참으로 삼광축산농장은 선진성, 현대성을 농촌에 접중할데 대한 정책적요구가 요소요소, 구석구석마다에 구현되어있는 농촌변혁의 종합적인 본보기로서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농촌건설에 관한 이상과 목표를 그대로 명시하고있습니다.

동지들!

삼광축산농장의 경이적인 변천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바는 매우 큼니다.

단순히 하나의 산골농장이 이렇게 변모되었다는데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농장마다의 특성에 부합되는 변화와 발전에로의 길을 띄워놓고 자신심과 욕망을 균형주며 용기를 촉발시킨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생산방식과 노동생활, 농촌문명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바꾼 삼광땅의 개혁은 우리가 해야 할 과제, 앞으로의 일감이 무엇이며 그것도 어떠한 수준에서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가리켜주고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는것은 삼광리를 지난 시기와 같이 몇몇 전형단위들처럼 내세우고 소개하는것으로 끝나자는것이 아니라 이를 발상으로, 출발점으로 해서 온 나라 농촌을 근본적으로 개편시키자는것입니다.

그러자면 역사적으로 농촌문제와 관련하여 당정책도 많이 제시되고 사회주의농촌체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도 반세기이상이나 벌였다고 하지만 왜서 우리 농촌들이 피폐한 상태를 가지지 못하였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시기 농촌건설에서 말공부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적인 실례를 들어보아도 도들에서 몇개 농장마을을 상징적으로 꾸려놓은것밖에 농촌건설을 한것이 별로 없습니다.

집행성, 가능성도 없는 정책이 이론에 불과하지 현행정책입니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투자나 지원이 산발성과 일시성, 과시성 측면에서 진행된것도 농촌건설에서 범한 오류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군들이 농촌건설을 정확한 목표와 기준, 방법론을 가지고 내밀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농촌건설에서 관건이고 기본과제로 나서고있는 농업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고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단계적으로 튼튼히 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축산에 대해 말하더라도 전후에 벌써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구호를 들었고 전국각지에 규모가 큰 축산기지들을 건설하면서 당장 고기와 알 문제가 해결될것처럼 떠들었지만 실지로 턱을 본것은 없습니다.

세포지구에 축산기지가 꾸려진지도 10년이 되어오지만 실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부문에서 육종체계가 제대로 서있지 않고 우량품종을 육종하는 기술은 거의나 공백상태에 있으며 우량품종들의 우수성을 보존,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바로하지 않았습니다.

알곡사료, 단백질사료가 결핍하고 우는소리나 하면서 사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달려붙지 않다나니 각 도들에 축산기지도 많고 능력도 작지 않지만 사료부족으로 초보적인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건설에 관한 우리의 투쟁목표는 그 어떤 수사적표현이나 요란한 구호로 달성되는것이 아니라 농업생산력과 농촌환경,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에서의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과 개편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룩됩니다.

우리에게는 말공부할 시간이 더는 없으며 오직 줄기차게 투쟁하고 부단히 개혁하여 무조건 변화된 환경, 갱신된 실제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상을 실물로, 현실로써 인식시키자는데 오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여기로 온 목적이 있습니다.

동지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나온 이후 우리 나라 농촌에는 변혁의 새 역사가 도래하였으며 실제로도 전취한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농촌살림집건설이 벌써 세해째 계속된 결과 모든 시, 군들에 현대적인 농촌마을들이 솟아나고있으며 알곡생산구조와 농촌기계화, 관개체계, 영농방법,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명수준을 포함하여 각 영역에서 개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적으로 지방발전정책실행이 본격화되면서 농촌의 발전과 부흥을 추동하고 밀반침할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들이 더욱 성숙되고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정도로 계속 나가는것으로 우리가 내세운 농촌혁명의 역사적과업을 얼마든지 달성할수 있다고 보면 안됩니다.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전망을 바로 여기 삼광리가 명확히 제시하고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삼광축산농장을 건설하는 과정에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농촌발전을 새로운 질적변혁단계에로 이행시키는것입니다.

농업근로자들이 모든 면에서 현대과학기술과 문명의 혜택을 다 향유할수 있게 되어야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목표가 달성되고 사회주의 농촌발전정책이 진짜 성공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농업생산은 물론 농촌살림집들과 교육, 보건, 문화봉사시설건설, 국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 등 각 방면에 걸쳐 전국의 모든 농촌리들을 삼광리만큼 개편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합니다.

현대농촌의 주요요인은 농업의 현대화, 정보화, 공업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농업생산과 직접 관계되어있는 토지와 도로, 관개시설, 전력계통을 규모있게 효율적으로 정리, 완비하고 지대적특성에 맞게 영농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여기에 무인화기술,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해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과학농사열풍이 전국을 지배하고있고 영농공정들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는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나선것만큼 농장들에서도 정보망하부구조를 구축하고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반건물과 온실을 비롯한 생산활동의 거점, 생산시설들도 규모있게 꾸리고 다용도화하여야 합니다.

농촌마을의 도시화, 문명화, 선진화도 현대농촌의 주되는 징표의 하나입니다.

지금 전국의 시, 군들에서 해마다 농촌들에 살림집도 짓고 공공건물도 세우고있지만 진짜로 도시부럽지 않게 만들자면 아직은 시작에 불과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장마을구획을 잘 형성하고 모든 건물들과 요소들을 현대적미감이 나게 건설하며 지금까지는 도시의 문명으로부터 되어오던 필수적인 문화생활요소들도 농촌들에 적극 이식하여 도농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농촌들을 현대농촌으로 변모시키려는것은 철두철미 농업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현대문명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만큼 모든 건설물, 창조물의 질을 완벽하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도, 시, 군들에서 농촌건설의 필수조건인 설계역량, 시공역량을 강화하고 건설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며 건재생산능력을 확장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이 좋아진다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기술수준, 문명정도가 저절로 높아지는것은 아닙니다.

우리 당이 일관하게 강조하는바와 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농업근로자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문화기술적으로 준비된 현대농촌의 당당한 주인, 농촌혁명의 담당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농업근로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고 과학기술인재화하여야 합니다.

중앙당 부서들과 성, 중앙기관들, 설계부문을 비롯한 연관부문들에서도 모든 농장들을 삼광축산농장처럼 현대적으로 꾸리는 견지에서 농촌발전에 대한 지도방조를 심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농촌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으며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이상향으로 전면시키는 역사적위업을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축산업을 세계적수준의 현대축산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과 국가가 지금까지 우리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 젓이 풍족히 차례지게 하기 위하여 축산기지들도 많이 건설하고 품도 들여왔지만 현재의 낙후한 수준과 취약한 토대로써는 질양적수요를 충족시킬수도 없거니와 축산업을 세계적수준에 따라세우기는 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심도 있고 전망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발전된 축산업수준과 대비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한숨을 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벌써 세계적수준에 도달한 현대축산의 본보기를 만들어 놓았으며 그 과정에 귀중한 경험과 교훈도 축적하였습니다.

이미전부터 우리 당이 우량품종의 종자확보와 충분한 사료보장,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철저한 수의방역을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로 제기하고 실현해왔는데 여기에 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 지능화를 더 포함시켜야 합니다.

삼광축산농장의 실상은 축산업발전의 필수요소들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정보화, 지능화가 구현되지 않고서는 세계적수준에 대하여 논할 여지조차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때문에 축산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삼광축산농장처럼 축산의 전반공정들과 요소들에 현대적인 정보수단과 기체들을 결합시켜 지능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로 지향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축산부문에서 새로운 5대고리를 축산현대화와 선진화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량한 품종의 종자를 부단히 확보하는것은 축산업발전의 선결조건입니다.

육종부문과 생산단위들에서는 선진적인 육종기술과 방법들을 받아들여 젓과 고기의 질이 좋고 생산성이 높은 우수한 품종들을 육종하고 확대하며 원종보존체계를 철저히 세워 퇴화를 막아야 합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종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 사료보장입니다. 이제는 사료문제도 집약적인 방법, 공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풀판들을 쓸모있게 개량하고 영양가높은 먹이풀들을 재배하며 풀판관리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배장에서의 연속적인 먹이풀생산방법과 집짐승품종별, 시기별, 개체별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료생산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을 비롯하여 먹이풀생산과 사료가공에서 집약화,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지난 시기 풀먹는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자면 필수적으로 방목지와 도로가 있어야 하는것이 전통적인 개념이었는데 여기에서 대담하게 탈피할 때가 되었습니다.

풀판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 실정을 놓고보아도 그렇고 세계적인 축산업발전추세를 보아도 옥내사육을 장려하고 확대하는것이 실리적입니다.

나는 이미 이에 대해 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사양공 한사람당 관리하는 집짐승마리수를 대폭 늘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 집약화, 전문화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옥내사육방법이 널리 도입되고 집약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맞게 축산단위들에서 배설물정화 및 재이용기술을 확립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면서 축산과 농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완비해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축산업이 집약화, 공업화되고있는 현실은 수의방역사업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축산업을 위협하는 전염성질병이 많이 퍼지고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시기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교훈이 있는것만큼 방역이자 생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집짐승들에 대한 검역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축산단위별로도 과학적이고 엄격한 수의방역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축산물생산과 가공을 일체화하며 젓제품과 고기가공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품질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전문축산업을 정보화, 지능화, 집약화, 공업화에도 이행시키는것이 우리 축산의 기본발전방향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서 전문축산단위들과 함께 농장들에서의 축산물생산과 개인축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것만큼 이를 적극 장려하며 여기에서도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들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축산과학교육부문과 연구단위들의 역할을 높이고 현대적인 축산기계들을 많이 개발생산하며 축산업활성화에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경제실무적대책들을 안받침하여야 합니다.

축산업발전의 가장 필수적이며 전략적인 자원인 기술일군대열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들이는것과 함께 나라의 축산업에 대한 지도체계와 과학기술보급체계를 더욱 보완하며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공간들과 요소들을 정이정돈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삼광축산농장의 축산현대화경험과 성과를 도입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 조직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도들에 있는 축산농장들은 꾸러진지 수십년이 지났고 새로 건설한 축산기지들도 있는데 어느 단위로 할것없이 여기에 와서 배우고 자기 실정에 맞게 새 출발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삼광축산농장을 훌륭히 꾸린 경험에 기초하여 각 도들에 실리있는 축산기지들을 연쇄적으로 일떠세우면서 축산현대화의 흐름을 고조시키면 나라의 축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들뿐 아니라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물론 전체 주민들에게 우유와 빠다, 치즈를 비롯한 각종 젓가공품과 고기가공품들이 항상 차례지게 하는 목표를 내세워야 합니다.

동지들!

농촌발전, 축산업발전의 전망에 대해 신심이 생기고 충분히 낙관할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험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불가불위의 일이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조업식참가자들모두가 당대회를 앞두고 농촌의 변천상을 직접 체감하면서 확고한 자신심을 가다듬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 장을 열어갈 공통된 의지를 굳혀야 할것입니다.

일군들은 축산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오늘의 조업식이 새시대 농촌혁명을 확대심화시키고 가속하는 중대한 계기, 힘있는 새 출발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삼광축산농장의 근로자들!

여러분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먼저 현대화된 농촌의 복락을 앞당겨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삼광축산농장의 근로자들과 일군들이 자기 고장의 연혁에 개혁의 새 폐지를 새겨놓은 금지와 자랑을 비상한 애국열의로 부단히 승화시키며 고향땅의 더 훌륭한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후대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끝없이 흥하고 더 아름답게 변모될 정든 고향과 더불어 삼광리의 모든 가정들에 기쁨과 행복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2026.2.8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회의가 2월 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대회준비위원회 해당 분과성원들인 당중앙위원회 중요부서 부부장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노동당 총비서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동지가 회의를 집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토의안건을 의결하였다.

첫째 <당 제9차대회 대표자자격심의에 대하여>

둘째 <당 제9차대회 집행부, 주석단, 서기부 구성안심의에 대하여>

셋째 <당 제9차대회 일정심의에 대하여>

넷째 <당 제9차대회에 제기할 문건심의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보고들을 청취하고 심의한데 기초하여 해당한 결정들을 가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대회준비위원회의 해당 분과들이 당대회준비사업을 각방으로 실속있게 추진해온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당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세부적인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를 2026년 2월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최할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2026.2.9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절대충성하는 특유의 사상정신적우월성과 전무한 대중적응용주의, 무비의 용감성과 불굴의 전투정신으로 강군의 개념과 승전법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혁명무력의 절대적위세를 명예의 절정에 올려세운 백전백승의 최정예대로 조선인민군은 자랑찬 건군사에 또 한돌기의 빛나는 승리와 기적의 년륜을 긍지높이 아로새기고있다.

영광의 군기에 새겨진 성스러운 글밭그대로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투쟁과 변혁으로 격동하는 혁명의 전위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위대함을 더해주고 융성발전의 새 전기를 개척해나가는 우리 군대의 전설적인 위훈과 힘찬 보무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역센 존엄과 무궁한 힘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8돐에 즈음하여 2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요 건군의 장병들을 축하격려하시였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존재와 강화발전에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믿음을 뜻깊은 건군절에 또다시 주고싶으신 열화의 진정을 안으시고 국방성을 찾아오시는 위대한 영장을 맞이하게 된 전체 지휘성원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최고사령관을 영접하는 엄숙한 의식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국방성은 김정은동지께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이 담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를 국방성 주요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정중히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각급 대연합부대, 연합부대들의 명예의 상징인 승리의 군기들을 사열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령군술로 주체의 강군건설위업을 승리로 인도하시며 우리 무력의 존위와 명성을 높이 떨쳐주시고 장구한 건군사의 영광을 끝없이 빛내여주시는 천하제일장군을 우러러 폭풍같은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게양되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최고사령관의 사열을 받으며 보무당당히 행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건군절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영용한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령, 군관, 병사들!

조선인민군의 최고지휘기관인 국방성의 장령, 군관동지들!

2.8절을 축하합니다.

우리 군대의 영웅적인 건군사와 백승의 행로를 긍지높이 떠올리는 이

명절은 비단 총잡은 군무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모두가 의의깊게 경축하는 혁명적명절입니다.

나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견줄수 없는 거대한 사명과 중임을 떠메고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해 백방의 역할과 무한한 헌신을 다하고있는 우리 군대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 건군절을 맞는 전체 장병들에게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전군의 군사정치활동에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전력하고있는 국방성 지휘성원들과 대연합부대 군정간부들의 책임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멀리 이역의 전투진지에서 영웅군대의 명예를 걸고 조국의 명령을 수행하고있는 해외특수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 오늘따라 더욱 보고싶어지는 그들에게 건군명절을 맞으며 뜨거운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해마다 이날을 맞이하군 하지만 나는 오늘 참으로 유다른 감정을 안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오래지 않아 개최하게 될 당 제9차대회를 앞둔 건군절인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의 위대함과 귀중함을 더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창군 이래 언제나 그러하였지만 지나온 5년간 격변속에 흘러온 승리의 여정을 돌이켜보느라니 우리 군대의 거대한 역할이 없었다면 정녕코 오늘의 영광은 없었을것이라는 생각에 우리 군대 전체 장병들에 대한 마음속감사를 이루 다 표현할길 없습니다.

인민군장병들!

한해한해가 힘겨웠던 개척투쟁, 변혁투쟁의 전위에서 당의 위업을 보위하고 나라의 주권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정말로 큰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연도에 더 수고가 많았음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대만이 이루어낼수 있는 역대초유의 극적인 사변들과 혁혁한 공훈들이 특별히 많았던 한해였으며 이로 하여 자기 군대에 대한 당과 인민의 신뢰와 사랑이 더 커지고 강렬해진 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대가 커질수록 충성과 위훈의 보부를 더 크게, 더 힘차게 재촉하는것이 우리 군대의 기질이고 본태임을 우리 군대는 시대와 역사 앞에 증명해보였습니다.

모두가 각오하고있는바 올해는 우리 군대의 투쟁전선이 더 넓어지고 더 과감히 분투해야 하는 거창한 변혁의 해입니다.

마찬가지로 당 제9차대회가 가리킬 앞으로의 5년도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우리 군대의 특출한 역할이 보다 높아지는 5년으로 될것입니다.

정녕 우리 군대와 같이 자기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적무장력을 전위에 세우고 새세상을 개척해나가는 우리 당의 배심은 언제나 든든하고 세상을 다 얻은것처럼 긍지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동지들!

건군절에 즈음해 전군의 전체 장병동지들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건투를 바랍니다.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용감무쌍한 우리 군대의 전진은 더욱 빨라질것이며 그 전투적노정에는 자랑찬 위훈과 명성만이 빛날것입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 만세!>

공화국무력을 영원히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위업수행의 전위에 값높

이 내세워주시는 대해같은 믿음과 정으로 충만된 김정은동지의 연설은 전체 장병들을 무한히 격동시키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장병들은 우리 혁명무력에 강군의 생명을 주고 눈부신 영광과 필승의 힘을 주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사랑을 성장의 자양으로, 운명의 피줄기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서 한치의 탈선도 모르는 신념과 의리의 인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온넛을 붉게 물들이는 사상의 강자가 되어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워나갈 전투적열광에 넘쳐 충성의 구호와 혁명군가를 합창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성 주요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과 뜻깊은 역사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국방성중앙군악단의 예식이 진행되였다.

전군을 새로운 승리로 부르는 진군나팔소리외도 같은 전투적기백으로 충만된 혁명군가에 맞추어 펼쳐지는 군악대원들의 변화무쌍한 울동대형과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의 능란하고 재치있는 무기기교는 건군절의 환희를 더해주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군절을 기념하여 국방성 본부 장령, 군관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부국강병대업실현을 위한 투쟁의 전초에서 우리 군대가 혁혁한 승전과 불멸의 공훈을 세우도록 뜨거운 격려의 손길로 자기들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최고사령관을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에 기적적인 변화와 괄목할 성과들을 이루어낸 우리 국가의 경이적인 발전과 공세적인 전진의 여정우에는 고결한 헌신과 값비싼 위훈으로 승리의 진격로를 열고 새로운 혁명의 양양을 부르며 변혁의 미래상을 현실로 떠올린 조국과 인민의 장한 아들딸들인 인민군장병들의 불멸의 공적이 역력히 어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창군세대로부터 오늘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혁명의 중하를 스스로 걸머지는 우리 군대의 혁명적본태는 변함없고 시련을 누르고 난관을 짓부시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용진해온 그 전투적행로 또한 자부스럽지만 가야 할 앞길은 더욱더 보람차고 영광찬란하다고 하시면서 당 제9차대회가 가리킬 장엄한 투쟁의 전구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 백전백승 영웅군대인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부르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결정을 절대적인 진리, 지상의 군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로 화답해온 우리 군대가 마주한 새로운 투쟁에서도 역사의 모든 연대의 영웅성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신화로 시대를 빛내이고 후세토록 경의를 받을 우리 세대의 명예를 높이 떨쳐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라는 성스러운 부름에 항상 충실하여 특유의 정신과 뉘으로써 전설적인 승리와 기적의 연대들을 떠받들어온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명성과 영광을 무궁토록 빛내어나갈 맹약을 담아 전체 참가자들이 터쳐올리는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이 2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쳤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군절경축 국방성 지휘성원들의 체육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건군절기념행사에 초청된 제대장병들을 만나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영도사와 언제나 함께 해온 장구한 건군사의 갈피갈피에는 한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무한한 희생성과 불굴의 기개로 당과 조국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제대장령들의 고귀한 헌신의 자취가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군력강화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의 국방성에 대한 축하방문은 국가주권과 발전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우리 혁명무력의 전위적역할을 변함없이 과시해나갈 인민군장병들의 숭고한 사명감과 분발력을 백배해준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026.2.14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월 13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동지와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 설계 및 창작단위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념관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실태와 조각장작 및 설치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념관의 외벽장식조각판형상이 주제특성이 살아나게 잘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해외군사작전에 참전한 우리 군인들이 발휘한 무비의 영웅성과 대중적영웅주의는 필승의 기치로 역사에 당당히 새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은 단순한 건축물이기 전에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이 후세도록 영생할 영웅전사들의 신성한 넋에 드리는 숭고한 경의의 결정체이며 그들의 값높은 삶을 숭엄히 떠올리는 존엄과 명예의 단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세부요소들에 이르기까지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일련의 수공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과 설계가, 창작가들이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경의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기념관을 참전열사들의 위훈과 영생의 상징으로 불멸할 성스러운 전당, 시대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 새별거리 준공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2026.2.15

오늘 이 자리에는 참전열사유가족들과 해외군사작전에 파견되었던 전투원들, 공병연대 전투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성 지휘관들을 비롯한 각급 인민군부대 장병들과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그리고 새별거리건설에 동원되었던 건설자들과 평양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동지들!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진정과 경의의 시선을 모아온 새별거리가 완공되어 우리 수도의 새 주소로 새겨지는 뜻깊은 날이 왔습니다.

가장 소중한것을 바쳐 가장 신성한것을 지켜낸 훌륭한 아들들의 고귀한 삶이 길이 이어지기 바라는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염원에 받들려 일

떠선 새 거리가 귀한 주인들을 맞을 시각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이날을 하루라도 앞당기면 조금이나마 다소 위안이 될것같아 그래서 그렇게도 재촉해왔고 기다려왔는데 정작 이 자리에 서고보니 기쁨보다 앞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우리의 장한 참전열사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새 거리의 주인들인 유가족모두에게 우리 군대 장병들과 평양시민들,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다 합쳐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웅들에 대한 더없는 존경과 의리심을 안고 새별거리를 훌륭히 완공한 수도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동지들!

지금 이 자리에는 조국의 곳곳에 일떠선 창조물들을 마주하여 느끼던 그 모든것과는 다른 숙연한 감정이 흐르고있습니다.

새별거리라는 이름은 이역만리 전장에서 조국이라는 부름에 한생으로도 못다하는 무게를 엮으며 최후의 한시각까지 것처럼 용감했던 참전 용사들의 생의 대명사로 이미 모두의 마음속에 간직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순간은 조선의 힘을 체현하고 조선인민의 위대함을 상징하며 신성한 존엄과 명예를 수호한 가장 영웅적인 시대를 평양의 역사에 기록하는 감격적인 시각입니다.

새별거리는 우리 세대의 영예이며 또한 평양의 자랑, 우리 국가의 자랑입니다.

유가족 여러분!

이 거리가 건설됨으로써 열사들은 이역만리에서 못건디게 그리던 혈육의 따스한 체취와 정든 집뜨락을 지척에 두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정깊은 그 숨결을 느낄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아들과 남편, 아버지를 둔것을 두고두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대대로 행복하게 살게 되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열사들과 혈로를 함께 헤친 전우들, 사랑하는 자식들과 남편들을 조국 보위초소에 세운 인민군후방가족들과 군인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두가 오늘의 준공을 기뻐하며 새 거리의 주인들이 못다 산 열사들의 생을 이어 부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희생된 영웅들이 더욱 번영할 조국명에 세워보았을 사랑하는 식솔들이 국가적인 우대와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긍지스럽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도록 각방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귀한 넋이 깃들고 온 나라의 존경심이 모이는 이 거리에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떠나간 그들에 대한 보답이 될것입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 거리에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높이 띄웠습니다.

전투원들이 가슴에 품고 혈로를 헤쳐던 국기이고 장한 아들들을 정히 싸안아 어머니조국의 품에 데려온 기쁨입니다.

그 찬연한 빛과 거세찬 펄럭임은 열사들의 고결한 넋과 심장의 박동을 아름답고 번영하는 수도 평양의 역센 숨결로 이어 위대한 조국의 영광을 무궁하게 할것입니다.

이제 새 거리의 준공테프를 끊는 시각은 참전열사들의 이름과 모습을 천추만대에 길이 남기는 영광의 시각으로 청사에 기록될것입니다.

조국의 장한 아들들의 영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